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료선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2020년 6월 1일 초판 1쇄 발행

저 자 | 최 차 순

펴낸곳 |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방송 (www.bbib.tv)
충북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로 1761-43

【문의·상담】 010-4176-5866 (최차순)

발행처 | 에버라스팅가스펠
【등록】 1990년 6월 20일 제19-26호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13-1
TEL. 031-955-1293, 1294, 1295(Fax)
www.egpa.net / info@egpa.net

세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료선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최 차 순 저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방송
www.bbib.tv

독자에게

본 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복음"(롬 16:25)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삼십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은 빠르게 지나 이제 일흔 두 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열심히 일하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밝아진 빛 가운데서 이 소중한 복음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본 서에 "나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PART 1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오신 "오직 예수" 그분을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의 전 삶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의료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의료선교 복음전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과 능력은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PART 2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담아주신 건강기별이 오늘날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건강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생활 속에 있는 단순한 치료제들을 건강법칙을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환자들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들도 가정에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PART 2. 6장 "건강생활 실천하기" 참조)

환자들이 본 서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신앙과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선교를 통하여 복음전도자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본 서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ART 3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현대진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보내주신 현대진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가르쳐지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

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조복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율법주의 행위신앙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위조복음입니다. 또한 사탄은 안식일 회복, 기도, 성령, 건강 기별 등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예수님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도말 되어야 합니다. 죄가 도말 되는 속죄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날마다 깊은 회개와 헌신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일치한 신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인도하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산다는 의미는 현재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내 마음성소에서 이루시도록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

다. 성소정결 사업은 우리의 마음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림의 때는 심히 임박했습니다. 세상의 일로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준비시키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본 서에 기록된 현대진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고, 정리해 주고, 타이핑 해준 염희 집사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마지막 단계에 교정을 봐주겠다며 원고를 읽으며 은혜를 나누어 준 손녀딸 최솔에게도 이 할머니의 큰 사랑을 전합니다.

2020년 2월 22일

가장 연약한 주님의 딸 최차순

목 차

PART 1.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1장 나의 의료 선교 경험

즐거움도 소망도 없던 신앙 16
나의 벧엘 19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지고 21
올케가 보낸 환자 23
꼬리에 꼬리를 물고 27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29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29
교파를 초월하고 지경을 넘어서 31
복음 사업은 복음의 능력으로 32
아~ 실명이라니! 36
누가 벧엘을 이어갈 것인가? 38
마게도냐의 부르심 40
바이올렛의 간증 44

2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50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52

3장 의료 선교 사역은 누가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사명 55
문서 선교와 병행하라! 58

4장 의료 선교 사역은 왜 해야 하는가?

복음과 건강 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 60
복음과 건강 기별을 분리시키는 위험성 62

5장 의료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녹의 모본 63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 요양원 64
건강 기관 66

PART 2.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

1장 창조주를 신뢰하는 믿음

왜 창조주를 믿어야 하는가? 74
창조의 과학 77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79
병은 말씀이 다스린다 84

2장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제대로 고치려면 86
병을 알면 약이 있다 89
하나님과 협력하는 믿음 90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93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참된 치료제들 94
이적의 위험성 97

3장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신선한 공기 102
깨끗한 물과 청결 104
적절한 운동 110
햇빛 113
휴식과 금식 115

4장 병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120
올바른 식사법 123
식사 배합법 128
건강요리의 기본원칙 129
육식의 위험성 134
건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138

5장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증 141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가? 145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151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155

6장 건강 생활 실천하기

아는 것을 실천하라 162
적용하는 방법 163

건강 생활 일과표 165
복음과 건강의 관계 171

PART 3.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계 14:6~12)

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178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182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184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령의 사역 187
참복음과 위조복음 189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음 196

2장 칭의 - 거듭남

거듭남은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 203
거듭남이 필요했던 니고데모 208
우리에게 필요한 거듭남의 경험 210

3장 성화 - 자라남

성화는 현재의 구원 212
겉사람과 속사람 214
엘렌 화잇이 말하는 성화 215

4장 영화 - 완전하게 됨

영화는 미래의 구원 218
죄의 도말과 심판 220
부활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됨 221

5장 영원한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 225
평화의 의논 226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228
나의 복음 230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누구인가? 233

6장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235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37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243
창조주를 경배하라! 244

7장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248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므로 바벨론이 된 교회 251
밤중 소리 254

8장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257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 262
조사심판과 성소 정결 264

9장 현대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진리 266
재림 준비를 위한 현대진리 272

【부록】 회복 이야기

백혈병 (태국, 토토) 278
심근경색 (김○○) 282
직장암 말기 (피부과 의사 김○○) 290
원수병 (중국, 강○○) 292
피부병 (이○○) 297
재발성 구내염 (한○○) 303
아토피 (김○○) 309
당뇨병 (김○○) 313

PART 1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나는 참된 선교사가 된 모든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식일에 그들의 발을 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깊이 생각하라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바이다.

이 장에서 명령한 자선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그것은 그분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업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추진해야 할 봉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교회에 풍성한 축복이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503

1

나의 의료 선교 경험

즐거움도 소망도 없던 신앙

나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 교회를 가고 사람을 따라 신앙을 했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자연스럽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교단주의적인 신앙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런 신앙생활이 30여년이 지나갔음에도 나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즐거움이 없었고, 인생의 낙도 없었다.

늘 갈등 속에서 갈급한 영혼은 여기저기 신앙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집회에 참석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해보았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은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이대로 교회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1986년 이른 봄 어느 날, 나는 개인 기도실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

>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이사야 53장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관한 예언적 묘사였다. 이 말씀을 읽고 있던 나의 시선이 5절에서 멈추었다.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장 5절

"우리"라고 쓰여 있는 글이 "나"라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동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성경책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냉랭하고 어둡던 내 가슴에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쳐오기 시작했다. 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나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다. 그 순간 죄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에 십자가로부터 사랑의 빛이 비취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도 임하셨다. 그 예수님은 나를 하늘에 연결하셨고, 이제 그분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셨다.

>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8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그 부요함, 곧 하늘의 모든 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온 영혼은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날 해가 지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은혜를 소멸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닥다리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

나의 벧엘

성경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취하였으나, 이를 알고 분노한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셨다. 도망 길에 지친 그는 돌을 베고 땅에 누웠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밝게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았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왔다.

>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 창세기 28장 13~15절

잠에서 깨어보니 그 빛나는 계시의 형상은 사라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야곱은 이렇게 외쳤다.

>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 창세기 28장 16~17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돌로 기둥을 세웠다. 그

는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고대 중·근동의 풍습에 따라 그곳을 "벧엘"이라 칭하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분리된 땅을 다시 하늘에 연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중보자로 보내주시겠다는 복음의 예시였다.

나는 이사야53장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위해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나의 온 영혼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소서!"

이렇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의 벧엘 수양원이 있게 한 것이다.

벧엘 수양원은 내 구원의 기념비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된 내 삶의 현장이 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산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별, 치유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수양원을 세울 때, '벧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벧엘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지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에게 자신을 드려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인을 위하여 갈보리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큰 사랑을 표현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기만 했다. 만약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아시는 그분은 내 마음 밭에 사랑의 씨, 의의 씨를 심으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전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을 전하며 살고자 결심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왔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하였다. 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킹 제임스 흠정역)

마치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랑은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깨워 일으켜 주셨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으며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 내 생각 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었다. 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소서."라는 기도가 순간마다 내 입술에서 나왔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만 쳐다보며 살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 마가복음 10장 29~30절

>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옛 친구와의 교제도 끊어야 하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세상에 붙은 소망도 모두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 실물교훈, 36~37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순교자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들이 나의 온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포기할 수 있다.

>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마태복음 13장 44~45절 ❖

올케가 보낸 환자

이미 마음으로는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결심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시며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의료선교 복음 전도법을 가르쳐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업이다. …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7~8) – 실물교훈, 417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내 주위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생명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 죄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내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으면서 식생활 개혁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식탁을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치료 봉사〉 1장에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나는 〈치료 봉사〉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씹어 먹

듯 읽었다.

"예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은 예수님께 고정되었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뜻밖의 응답을 주셨다. 오십 대쯤 되어 보이는 행색이 초라한 한 분이 찾아왔다. "여기 오면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대하면서 몹시 당황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 주소와 전화번호와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쪽지 하나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이곳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듣고 보니 진주에서 친정 올케가 보낸 환자였다.

약 1년 전쯤이었다. 진주에 사는 친정 오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병을 얻었는데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설사를 한다고 했다. 병원에 다녀도 낫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못 먹고 기운을 잃고 누워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이 났다. 내가 알고 있던 약간의 상식과 그동안 읽고 있던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과 〈치료 봉사〉에서 얻게 된 지식으로 오빠를 도와주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설사를 하는 오빠를 일단 이틀간 금식을 시켰다. 깨끗한 생수만 마시게 하면서 올리브유에 숯가루를 섞어 하루 두세 차례 복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위의 통증이 사라졌다.

상한 위벽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건강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쉽고 단순한 치료법이다. 그때 그 일로 인해 친정 올케가 이 환자를 우리 집에 보낸 것이었다.

이 아주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치매에 걸린 팔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었다. 18년 전부터 앓아 온 당뇨 합병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제발 좀 살려 달라고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다. 당뇨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마 25:31~40)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던 방 한 칸을 비워 그 아주머니를 맞이했다.

그날부터 이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처럼 지내며 배운 대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교제하면서 정해진 일과표를 따라 건강 법칙대로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 예배시간을 통해 이 아주머니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 하면서 내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을 찾아서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설명하고 실천하게 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분의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다. 이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하면서 말했다.

"너무 신기하네요!"

"바로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19일 간 우리 집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며칠 후, 또 다른 당뇨병 환자가 진주에서 왔다. 바로 그 아주머니가 보낸 환자였다. 그 후 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환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환자를 소개하기도 하여 환자 집을 방문하여 건강생활을 지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의료 선교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오신 분들에게 건강 기별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필요에 따라 방을 한 칸씩 더 늘려야 했고 우리 집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분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데는 경제적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했다. 오직 봉사에 전념하기로 한 나는 하던 일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집 경제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양식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아래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일을 해 온 수십 년 동안에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역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역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 주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시대의 소망, 371 ❖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벧엘을 찾는 분이면 누구나 "여긴 한 달 요양비가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다. "집에 가실 때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내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떤 분들은 난처한 듯, 어떤 분들은 반가운 듯 반응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하면서 걱정스런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양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요양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갈 때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고 간다. 이렇게 하여 먼저 오신 분들이 주고 가는 것을 받아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함께 먹고 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 누가복음 6장 38절 ❖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사야 58장에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 개역성경)들이 해야 할 사업이 명

시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넓은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만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것 같은 엄숙함 속에서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고, 그에 따른 인력과 재정은 계속 공급 되었다.

가정에서 시작한 이 일은 고 최성훈 목사님이 산 일부를 내어주시므로 현재 벧엘 수양원의 터를 잡게 되었다.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도 점점 더 늘었다. 나는 건강 기별과 복음을 전했고 남편과 아이들은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의료 선교의 불꽃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타올랐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까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와 화해가 일어났고, 질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 나왔다. 창조주와 신앙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서 인간관계도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마련하신 천연치료제를 통하여 환자들은 병이 낫고 있었다. 이 일에 함께한 어떤 이들은 마치 초대교회의 현장을 보는 것 같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종합병원', '인간 재생 공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을 계속 보내왔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혹시 병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평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요한의 옥문은 열어주시지 않으셨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장으로 끌려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많았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 안에서 잠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치유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

교파를 초월하고 지경을 넘어서

이 일을 시작한 지 3~4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일 년에 거의 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한국뿐 아니라 외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교파를 초월하여 육체적·정신적·영적으로 병들고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왔다. 각 계층의 사람들,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평생을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참 신이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불상과 염주를 다 태워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다.

초교파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을 따라 그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창2:1-3참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참된 예배의 표징으로 삼으신 날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 출애굽기 31장 13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오면 처음에는 토요일에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안식일은 날짜 이상의 영원한 복음이 약속된 표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 회복의 약속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여 이제야 참 진리를 알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도 초청을 받아 다녀보면 가는 교회마다 벧엘을 거쳐 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벧엘에서 신앙을 받고 어떤 이는 목사가, 어떤 이는 장로가, 어떤 이는 집사가, 어떤 이는 선교사가 되었노라고 한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수많은 일을 어떻게 지면에 다 옮기겠는가. ❖

복음 사업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부드럽고 상냥

한 기질을 타고나지 못했다. 이 타고난 성향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과 조화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이었다. 이뿐 아니라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여지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하고 죄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 그만두려고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면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곤 했다.

"원장님, 오래오래 살면서 이 일을 길게 해 주세요." "암이 많이 줄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암 덩어리가 복 덩어리였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진리를 찾았습니다."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

사람들은 각각 다른 경험을 말하였지만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간증들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와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일해 준 큰딸 선아의 도움이 컸다.

복음 사업은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나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오직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어야 하였다. 그

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 나는 아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나의 재능이나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온갖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
> 사람이 영적인 일이거나 세속적인 일이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였다면 그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와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능력에 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다. 인간 대리자가 맡은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 실물교훈, 82

나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배우게 되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건강 기별이 전파되었고,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 마태복음 4장 23~24절

복음은 어느 모로나 건강 개혁을 포함한다. … 건강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데 더욱 뛰어나야 한다. 건강 개혁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건강의 복음은 말씀의 복음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 개혁의 회복시키는 감화가 복음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 중 일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다. … 복음 사업과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연합함으로 건강 개혁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복음의 감화 아래서 의료 선교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서 분리된 의료 선교사업은 불구가 될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75

이러한 말씀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에 인을 쳐 주었기 때문에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역에서 모든 일을 하셨고, 나는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다.

이 인용문 외에도 의료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관하여 분명한 증언이 있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에 옮긴 복음"(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32)이며, "참된 교육은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한 훈련이다."(치료 봉사, 35)라고 하였다.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단지 말씀에 따라 시골로 이사하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에녹처럼 살고 싶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미약한 시작이 의료 선교 사업으로 발전하여 오늘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수 천 수만의 사람에게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 시편 37편 5~6절 ❖

아~ 실명이라니!

40대 후반쯤 되었을 무렵,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불평을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최차순 집사는 인사를 해도 받지 않더라."

"어떻게 못 본 척 하는 거지?"

"손을 내미는 데도 악수하지 않는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참으로 많은 오해가 일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안과를 찾았더니 단번에 의사는 내 눈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시야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았을 텐데요? 이 눈은 유전성 질환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실명되는 눈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망막색소변성증'이란 유전병을 받고 태어났다. 이 병은 시신경의 퇴화로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게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다. 원래 시력은 좋지 않았지만, 시력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실명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실명이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나의 시력을 끝내실 때는 나의 목숨도 함께 끝내 주세요." 정말 나는 그렇게 해 주시길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더 좋은 시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앞을 볼 수 없으니 그동안 해오던 바쁜 일들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

의 말씀을 읽을 수는 없지만 마침 들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 내 눈앞에 세상 사물들이 사라지면서 지금 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게 되어 오히려 내 영혼이 이전보다 더 생기를 얻고 주님과 더욱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 시편 19편 8절 ❖

누가 벧엘을 이어갈 것인가?

벧엘 수양원은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애정과 관심을 두는 곳이다.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확장하는 일에도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담겨 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연합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한 이곳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었다.

'누가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가?' 생각하며 이 일을 이어서 일할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선교

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 젊은이에게서 앞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나라에 건강 기별과 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나 역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반가웠다. 그리하여 벧엘 수양원을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교회에 넘겨주게 되었다.

2019년 10월에 나는 큰 딸이 살고 있는 충북 보은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현재 나는 벧엘의 현장에서는 떠나왔으나 여전히 명예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벧엘을 넘겨주고 떠나려 할 때에 나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빈터에 오늘의 벧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회를 통하여 나의 생활비를 매월 보내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

>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그분께 바친 자는 우주의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황금 고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로 이어진다. 주님께서는 고통 받거나 힘든 시기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 산상보훈, 24

나는 지금 노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고침을 받은 맹인이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듯이 나 또한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밝아진 시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뵈올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 요한계시록 22장 20~21절 ❖

마게도냐의 부르심

삼십 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났는지 이제 일흔 두 살의 할머니가 되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인 나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시력을 완전히 잃은 나는 더 이상 현장에서 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벧엘 수양원의 현장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현재 나는 전혀 생각

지도 못했던 '해외 선교'에 부름을 받고 일하고 있다. 실명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에 그동안에 내가 배우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의 남은 삶을 마치려고 한다.

벧엘 수양원에서 제3기 '세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가 열릴 때였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이 기별을 태국 땅에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2017년 9월, 태국 무악렉에 위치한 'MHPC'에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The Maker Heals)"라는 주제로 "세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처음 열었다. 이 세미나에 태국과 주변 국가들에서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열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세미나에 열흘 내내 참여한 태국 대회장님(태국에는 현재 연합회가 없고 대회가 조직되어 있음)이 자신의 임기 동안 태국의 목회자들 전체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2018년 2월에 방콕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흘씩 두 차례에 걸쳐 갖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던 삼육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초청으로 태국의 삼육학교 여러 곳에서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세미나를 할 때마다 참가자들이 여러 질환에서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집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치료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 세미나를 많이 열었고 참여도 해 보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앙과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과 영원한 복음을 세 천사의 기별로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을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 개혁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가자들은 경험으로 건강 기별과 복음을 이해하게 된다.

태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도의 아로라 목사님을 통하여 "인도 땅에도 이 기별을 전해야 하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첫 세미나가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연합회장님은 연합회의 전 직원들에게 열흘간 휴무하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 연합회 내에 속한 일선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The Maker Heals)"라는 주제로 "세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열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인도 전역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아시아지회와 여러 연합회, 합회, 학교 등에서 초청을 받아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다.

세미나를 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참가자들은 영과 육의 회복을 간증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에 우리 팀이 인도의 동북연합회에 도착했을 때 연합회장님은

"우리는 이 세미나를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며 우리 팀을 맞아주었다. 집회를 마치고 동북연합회의 보건복지부장은 자기 고향인 미조람합회에서도 이 세미나를 개최해 달라고 부탁하여 세미나 일정을 잡았다.

그 외에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계속해서 세미나 요청을 하고 있다. 주님은 복음 사업과 의료 선교 사업이 연합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전도법을 그분의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나는 시력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영적 시력을 열어주셨고, 그동안에 배우고 경험한 진리를 증거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 눈이 되어주는 친구, 영어와 각 나라의 언어로 통역하는 입이 되어주는 친구 그리고 가난하고 열악한 여러 지역을 다녀오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뒤에서 말없이 후원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함에 있어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리하여 나는 이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세 천사의 기별을 방방곡곡에 전하고 있다.

복음이 나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육체적·정신적·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의 소식은 인도와 동남아 여러 지역에 퍼지고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하나의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증인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

바이올렛의 간증

그 중 한 사람의 간증을 들려주려고 한다. 이 사람의 간증은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www.bbib.tv)에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저는 인도 남부 마드레이의 삼육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이올렛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신장결석을 앓았습니다. 백반증과 갑상선 질환도 있었습니다.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3개월에 한 번 결석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요로 감염과 고열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날이 많았기에 학교는 저를 보조교사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2017년에 의사 선생님은 제 신장기능이 30퍼센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약물치료로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친정어머니도 신장병으로 투병 중이셨고, 제가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 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에 델리에서 의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큰아들 잭슨이 북인도연합회에서 개최된 "The Maker

Heals(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열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제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며 바로 비행기표를 구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상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남아시아 지회에서 그 열흘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세미나가 제게 도움이 될 거라며 함께 참석하자고 하였고, 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 첫날 최차순 원장님은 제게 3일간 과일 금식을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 중에 몸 상태가 좋아져서 저는 자발적으로 이틀을 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미나 시작 후 처음 이틀까지는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흘 세미나가 마칠 즈음에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던 곳의 넓은 운동장을 다섯 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미나 시작 후 며칠 만에 백반증으로 인해 변했던 피부색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으며, 결석들이 하나씩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몸은 신장결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The Maker Heals" 세미나에 참석한지 두 달 만에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신장기능이 48퍼센트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세미나 참석 전과 후의 제 몸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세미나 참석 전 저는 가족을 위해 요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혼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일을 할 기운이 없어서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바닥을 쓰는 것만 겨우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참석 후 저는 바닥을 쓸 뿐 아니라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등 정상인과 다름없이 일상의 의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제가 2019년 9월, 트리치시에서 열렸던 "The Maker Heals" 열흘 세미나 때는 주방을 맡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며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편이 세미나 기간 동안 걱정이 되어 중간 중간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제가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

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3대째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도 제 건강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제 영적 성장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우울했으며,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서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에 역사하셨고 제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에 제 가족도 행복해졌고, 가족 간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무엇을 요리해 주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등 소소한 것들까지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 있을 때 같이 화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 품성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거 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동료 교사 및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고학년 수학과 컴퓨터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

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삶이 학생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학생들은 제가 싸온 점심 도시락을 맛봅니다. 제가 건강식으로 요리한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들도 저처럼 하겠다고 말합니다. 제 남편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건강한 식생활을 따르라고 권하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신장기능을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질병 또한 확실하게 고치시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제 삶을 바꾸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실 것입니다.

벧엘 수양원은 나를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 하도록 교육한 학교였으며, 예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진리를 가르치신 최고의 교사이셨다. 나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살아 있어서,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생생하게 배웠다. 이 소중한 복음을 나 혼자 누리다가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열고 있는 "세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시대

에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내가 배우고 경험한 말씀을 토대로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나의 길을 비추어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진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주님, 저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 내가 그 큰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오직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확실한 복음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분을 직접 대면할 그 날만을 기다리며 궂은일, 좋은 일, 바쁜 일을 다 뒤로 하고 재림 준비를 위한 복음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재림의 징조가 예언의 말씀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온 가족들도 그 날에 함께 서게 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마라나타! ❖

2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열두 제자들은 삼 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은 다 흩어졌다. 예수님이 이들을 잘못 가르치셨을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가지 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던가?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일정 기간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몇 가지 치료법만 배우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하다. 의료 선교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법칙과 천연계의 법칙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마 4: 23)셨다.

의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경험 되는 것이다.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의 사역으로만 될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된다. 이 일은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사업이며 이 사업에는 이른비 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늦은비가 약속되어 있다.

제자들이 이른비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도 약속하신 늦은비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마쳐질 마지막 사업이다. ❖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

오순절 이후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운 의료 선교사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나누는 사람들이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은 참된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 봉사, 21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나누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 배운 참된 의료 선교사이다. 이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품성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58장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우게 될 단순한 건강 기별을 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지금 당장 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 선교사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병의 증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단순히 병만 고치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님처럼 일해야 한다. 이것이 의료 선교사에게 가장 필수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인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고 여러 가지 치료 요법들을 사용할 때, 일시적인 효과나 건강이 호전되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진정한 회복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의료 선교사의 사명이다. 의료 선교를 통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자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 나는 의료 선교사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위대하신 모본자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포하는 것을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들이 구주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토록 크게 실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들은 자기의 일상생활로는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영과 육이 성화되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의료 선교사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오, 이 이름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 의료 봉사, 21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 교회증언 8권, 168

의료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일이다. – 의료 봉사, 131 ❖

3

의료 선교 사역은 누가 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사명

의료 선교 사역은 의사나 간호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복음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이다. 특히 에스겔 33장에 나타난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사역이다.

목사는 복음 전하고, 의사는 병고치고, 신자는 봉사 하는 것으로 복음 사업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 에스겔 33장 7~11절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결합하라. 수년간 떨어진 채로 남아 있는 죽음의 수준으로부터 교회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 모든 가정과 개인 앞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건강 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일꾼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모든 이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동료를 위한 사업에 참가시키고, 이들 교회에 생기가 신속히 돌아오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에스겔 33장을 신실하게 연구하라. 의료 선교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역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사역이다. –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16

모든 신자가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때가 왔다. – 구호봉사, 137

우리 앞에는 폭풍의 시대가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이나 낙담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자.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에 전해야 할 치유의 기별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자. –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36

건강 개혁 사업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을 경감시키며 그분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수단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대가이신 분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팔이 되어 활동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치라. 이 사업에는 하늘의 서명이 있고, 다른 귀한 진리가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이 사역을 지혜롭게 운영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자리가 있다. – 교회증언 9권, 112~113

만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안다면 목회 사역에 두 배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 의료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목사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보다 훨씬 능률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자신의 사역은 훨씬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복음전도, 519

목사의 사역은 봉사의 사역이다. … 그대들이 의료 선교 사역, 곧 치유와 축복과 건강의 복음에 확고한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는 복음 명령을 따르는 목회자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 구호봉사, 139

목회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는 건강 개혁이 그와 동일한 사역의 한 부분이요 짝을 이루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충실히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실천하

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되며,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조해야 한다. – 교회증언 1권, 469

새로운 선교지에서 의료 선교 사역만큼 성공적인 일은 없다. … 의료 선교 사역은 인류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준다. … 이것은 복음이 실천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사역은 매우 필요하며, 세상은 이것을 잘 받아들인다. – 의료 봉사, 239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 누가복음 5장 15절 ❖

문서 선교와 병행하라!

이 분야(문서 전도)의 사업을 담당하는 자들은 의료 선교 사업도 할 준비를 갖추고 나가야 한다. 병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자비의 사업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 교회증언 9권, 34

그들로 하여금 전도자로 일하게 함으로 우리의 출판물들을 뿌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약으로써가 아니고 천연요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며,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라. – 구호봉사, 133

문서 전도인이 각 곳으로 다닐 때에 앓고 있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며 간단한 치료법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병자를 위해 믿음과 성실로써 기도하며 그들에게 위대하신 의원에 대하여 말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고 일할 때에 돕는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도록 해준다. 충실하고 헌신적인 문서전도인 앞에는 얼마나 넓은 선교 활동분야가 놓여 있는지!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134 ❖

4

의료 선교 사역은 왜 해야 하는가?

복음과 건강 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의료 선교는 예수님이 친히 모본을 보이신 것이요, 그분의 지상명령이다. 의료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료 선교 사역이 연합되어야 할 중요성에 관하여 몸과 팔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 몸에 팔이 없다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 사역에 의료 선교 사역이 분리되어 있다면 완전한 복음으로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팔과 손이 몸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의료 선교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연합해야 할 것을 거듭거듭 지시받았다. 그것들은 거룩한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일에 연합하여 일하여야 한다. 진리의 몸에 붙은 오른손은 끊임없이 활동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몸은 팔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몸은 활동적이요 진취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팔이 필요하다. 그 둘은 다 같이 맡은 일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 증언보감 2권, 526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 증언보감 2권, 528~529

다른 분야의 전도 사업들이 그칠지라도 의료 선교 사업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이다. – 대총회 회보, 1901.4.12.

머지않아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면 목회 분야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 구호봉사, 139 ❖

복음과 건강 기별을 분리시키는 위험성

목회 활동을 얕보고 의료 선교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들은 팔을 몸에서 분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성공을 거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손과 팔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재물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업은 균형을 잃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는 달리 손과 팔이 몸 전체를 대신하게 되어, 목회 사업은 위축되고 전혀 무시될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주님의 포도원의 많은 부분들을 손질되지 않은 채 버려두게 될 것이다. – 증언보감 2권, 526~527

복음 전도 사역과 의료 선교 사역은 병행되어야 한다. 복음은 참된 건강 개혁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교가 실생활에 활용되어야 한다. 열심 있고 철저한 개혁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33 ❖

5

의료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녹의 모본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의 삶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에녹의 삶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에녹의 가정은 배고프고 병든 영혼에게 봉사하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전하는 가정 요양원의

모본이었다.

나는 30여 년 전에 이 빛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지내는 방 한 칸을 비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가정요양원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를 막론하고 받은 것을 나눌 때에 더욱 부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다.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수 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 이적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에 즉시 순종한다면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다.

신앙은 삶이며 그 삶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이다. 다시 말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의 주님을 증거 하는 것이다. ❖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 요양원

의료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곳곳에서 가정요양원을 시작할 때 이것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증인이 될 것이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양원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거대한 요양원이 아니라 호감이 가는 장소에 위치한 가정형 기관이다.
결코, 결코 거대한 요양원을 짓지 마라. 이 기관은 작아야 하며 더욱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코 도시 안에 요양원을 짓지 마라. 건물을 임대하고, 도시 바깥에 적당한 자리를 계속해서 물색하라.

병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과 같은 다수의 소규모 요양원을 설립함으로써 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아야 한다.
요양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참되고 순수한 종교의 감화가 많은 영혼에게 뻗어갈 것이다. – 의료 봉사, 323~324

호주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의료 선교사들로서 활동하였다. 때때로 나는 쿠란봉에 있는 나의 가정을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었다. 배틀크릭 위생 병원에서 훈련을 받은 나의 비서는 언제나 내 옆에서 선교 간호사의 봉사를 하였다. 아무도 그의 봉사를 비난하는 자가 없었으며 우리들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여 준 관심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신뢰심을 얻게 되었다. – 가려 뽑은 기별 1권, 34

우리의 요양원에서 양성된 일꾼들이 진리가 결코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 – 편지, 17.1905 ❖

건강 기관

가정 요양원과 더불어 건강 기별을 전할 여러 기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건강 기관은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셨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하고도 거룩한 사업은 우리 세상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도시에는 병자들을 돌보아주고, 건강 개혁에 관한 숭고한 원칙들을 가르칠 건강 기관이 있어야 한다. – 편지, 146.1909

그 기관의 경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때 말씀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교육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건강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대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환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죄로 병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 안에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생명의 순환에 의하여 병이 낫게 된다. 이 법칙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원칙을 떠나서 환자들의 기분전환이나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건강 회복은 건강 법칙에 순종하므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기관을 찾아오는 영혼에게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런 기관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대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원칙들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건강 기관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서 벗어날 때에는 환자에게나 경영자에게 축복대신에 저주가 될 것이다.

습관들을 고치게 하며 건강한 생활 원칙들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예방이 열 번의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분야에 관련된 강의나 연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이 판명될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280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영향을 발휘하고, 노유를 막론하고 신앙적 원칙을 약화시키지 않고, 육신의 건강 개선이 영적 성장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경향을 가진 건강 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기관의 큰 목적은, 육신의 건강을 개선시켜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적 사물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목적을 계속적으로 명심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축복 대신에 저주임이 판명되고, 영적인 것이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육신의 건강과 기분 전환이 첫째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기관이 불신자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그 경영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고상한 영적 위치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힘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들 곁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 기관은 이득을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물을

올바로 식별하고 우리 구주의 고난으로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바 된 구속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주기 위하여 세워져야 한다. 이 기관은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회증언 1권, 564~565

우리의 요양원들은 그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진리와 선과 유용성의 깃발을 항상 올려야 한다. 복음 나무의 복스러운 열매들이 철저한 헌신 속에, 거룩한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 – 의료 봉사, 163

또한 환자를 재정을 날라다 주는 수입원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 사역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정신 곧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신이야말로 경영자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자질이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이루는데 이타적 사랑보다 더 강력한 덕목은 없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 시대의 소망, 623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운동에 큰 도움과 힘이 될 의료 선교 사역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사역에

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옷감을 망가뜨릴 한 오라기의 실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 구호봉사, 120~121

나는 건강 개혁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하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거리와 골목에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되어 있다. 나는 우리 요양원에서 많은 영혼이 현대 진리를 받고 순종할 것이라는 특별한 빛을 받았다. 남녀들이 요양원에서 자기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돌보며 동시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

우리 요양원들은 의료 선교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킬 생명나무의 잎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47

교회의 교인마다 의료선교사업에 총 궐기할 때가 왔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로 가득찬 수용소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탁하신 진리의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하고 있다. 이때에 빛을 감추는 것은 무서운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25

의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 치료봉사, 243

1865년 12월 25일에 받은 이상에서 나는, 건강 개혁이 큰 사업이며 현대 진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을 치료받고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요양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 교회증언 1권, 553

PART 2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시”(신 7:15)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을 다 성취하였을 때에 그 약속이 저들에게 확증되었다.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시 105:37) 이 교훈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두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연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21

1

창조주를 신뢰하는 믿음

왜 창조주를 믿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지 다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믿음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본 서는 독자들의 관심을 창조주께로 향하게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시 121:1-2 참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로부터 나온 피조물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분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전하는 그 창조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

하였다.

>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 사도행전 17장 24~29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라.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창 1:26),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고후 6:16)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하셨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지금도 죄로 병든 인간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새로운 창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건강과 신앙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은 환자가 창조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물교훈이다.

모든 인체기관은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활동하므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마음은 몸의 수도이자 사령탑으로서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하건 악하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늘의 존재자들과 교통하는 기관 역시 마음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마음의 중요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인체 속에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문이 있으며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인체에는 물질세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과학이 있다.

하나님은 천연계의 법칙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천연계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 인간의 시간, 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 ❖

창조의 과학

성경에는 예수님께 치유 받은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환자들을 치유하셨다. 그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5:8)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때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고 걷지 못하던 다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자마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 의지에 응답한 것이었다. 그는 두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엘렌 화잇은 이 환자의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 시대의 소망, 203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능력을 담고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할 능력을 받게 되며, 그 말씀은 현실이 된다.

이것은 창조의 과학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는 있으나 설명이 불가

능한 창조의 신비한 능력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오늘날에도 환자들이 천연계의 법칙을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꿈이나 환상으로 혹은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만나는 것만은 아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 승천하여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때 동일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날 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동일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다음의 간증을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48세 남자 이OO입니다. 27세 때부터 앓고 있던 이 병은 경희의료원과 한양대 등 여러 병원의 진단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불치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관절과 관절 사이의 연골이 삭아서 없어지는 병인데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을 수반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젊은 나이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방에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무엇이든 다 먹어 보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 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약은 그때그때 통증을 약하게 해 주는 진통제였습니다. 그 약으로 20년을 살아 온 셈입니다.

그러던 중 10년 전에 오른팔 팔꿈치를 자르고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해서 그곳에는 통증이 없어졌는데 그 외 다른 부위는 여전히 아팠고 약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턱뼈를 움직이는 관절 부위가 아파서 밥을 씹어 먹

지 못했고 이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아랫니가 몽땅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랫니는 틀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사이사이가 툭툭 불거지고 뒤틀리고 꼬부라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 못지않은 마음의 고통이 더욱 심했습니다.

저는 7남매 중 장남으로 늙으신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있었고,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젊음을 다 소진하며 고생하는 저의 아내에게 너무도 미안해서 더욱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참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차려 주는 밥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방에 누워 하는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것 뿐 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고, 아내는 직장 가고, 온종일 텅빈 집에서 하루하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었습니다.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곤고해질 대로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넷째 동생의 소개로 이곳 벧엘 수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오긴 왔으나, 설마 이런 병이 나을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실오라기만한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면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녀 본 경험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 4월 2일 새벽, 벧엘에 도착하자 아침 강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포근함

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차순 원장님의 강의 내용은 나의 메마른 심령에 촉촉한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서 오너라, 왜 이제야 왔느냐?"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똑똑히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죽겠나이다. 이 몸을 받아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무거웠고 어깨의 짐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해 지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와 형제, 처와 자식들 모두에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감, 나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주변에 폐만 끼치고 있다는 자책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은 여전히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약을 끊어 보라는 원장님의 권유에 약을 끊고 나니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이면 소파에 나와 앉아서 밤을 새기도 하고, 옆에서 자던 환자가 만져 주기도 했으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벧엘 수양원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미 소리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환자들의 기도와 간증으로 어우러진 그 예배는 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하

는 예배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원장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리가 확 밝아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짐을 내려놓자. 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 내 이 짐을 내려놓자. 쉬어 보자.'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쌓여 있던 온갖 짐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 고독하고 외로웠던 심령, 가족에 대한 부담, 이 모든 짐을 내가 맡아 줄테니 내려놓고 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었던가! 이 짐을 받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짐을 능히 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희망으로 들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 순간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환희, 기쁨, 후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심장이 꽉 막혀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 바닥에 쓰러져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울지 않고 참았더라면 아마 심장이 파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이 허전할 정

도로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꿀송이 같이 단지, 내 짐을 그분께 맡기기 전에는 늘 속으로 내 병을 고쳐 주십사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미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맡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안식일 오후,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읽고 싶어 책을 읽고 있는데, 나의 손목에 통증이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언제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팔목을 움직이는데 전혀 아프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오전 노작 시간에 환자들과 함께 밭에 가서 채소를 심기 위해 삽질을 하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밭 한 이랑을 다 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은 좀 없었지만 움직이는 것은 정상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5번 척추가 밀려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걷기가 매우 불편했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서 등을 만져 보니 튀어나왔던 등뼈가 거의 정상으로 제자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병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연골을 재창조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에 인공 연골을 끼워 수술한 오른팔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 글을 쓰는데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이 간증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 그가 꼭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는 나를 위하여 너무나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나님 집에서 그를 못 만난다면 저도 거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의 자식들과 온 가족들,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같은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

병은 말씀이 다스린다

이 환자가 회복된 것은 창조의 능력인 생명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다.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

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 107:20).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천연계의 과학을 이해하게 된다.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온 몸에 창조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하신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에 나눠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모든 중요한 부위들 이를테면 뇌와 심장과 신경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워져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그것과 아울러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50 ❖

2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제대로 고치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영국 런던의 시청 앞, 큰 거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시계탑에 이상이 생겼다. 고장 난 시계 때문에 많은 이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시청 관계자는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시장을 찾아와 자기가 고치겠노라 말하며 시계탑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시계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놀란 시장은 노인에게 어떻게 고쳤냐고 묻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내가 이 시계를 만들었던 사람이오."라고 대답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에

게 찾아가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고장 나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께 찾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몸을 잘못 사용 하다가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많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고 있지만, 수술과 약물에 의존하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만나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만드신 분에게 가야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필자가 운영해 온 벧엘 수양원에서는 현대 의학에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부록 '회복 이야기'에서는 생을 포기할 뻔 했던 사람들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 들이면서 건강을 회복한 생생한 경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서양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의 힘이 진정한 치유제이다."라고 했다. 진정한 치유제인 그 힘은 과연 있는 것일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그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독자들은 여기서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자연의 힘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의 능력에서 자연의 힘은 비롯된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는 사람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기관에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는 법칙을 기록해 두셨다. 그 법은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되는 도덕법, 곧 사랑의 원칙을 포함하며 또한 온 세상의 기초가 되는 천연계의 법칙도 포함한다.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않는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영계를 주관하는 법칙과 천연계를 주관하는 법칙이 동일한 법 안에 들어 있다. 인체를 주관하는 모든 법칙은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특성과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하다. 만약 영안이 열린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의가 우리의 세상에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지배아래 있지 않은 강력한 힘이 법칙에 따라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그 법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만사는 다 법대로 되는 것이다.

사람이 건강법칙을 범하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순종과 치유에 관한 귀한 약속들이 있다.

>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출애굽기 15장 26절 ❖

병을 알면 약이 있다

병이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병에 걸렸다면 원인을 살펴보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몸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회복력에 의하여 회복되기 때문에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치유가 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각종 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아토피를 포함한 모든 피부 질환, 간장, 신장, 심장, 자가면역 질환 등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변질이 일어났든지 기능이 저하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질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고 있다.

세포에 문제가 일어나서 생긴 질병은 세포를 정상화시켜 주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물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제거되고, 증상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근원적인 건강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건강을 회복하는 진정한 치료법은 삶 속에 존재하는 천연계의 법과 도덕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병든 몸을 회복하는 치료제가 되고 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 시편 139편 13~15절 ❖

하나님과 협력하는 믿음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분의 삶과 일 속에서 보여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 없이 일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활용할 때에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기도를 생활에 옮겼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 청년 지도자, 1903.8.20.

그분의 모든 허락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

하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지속함으로 영양분을 공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고 한다.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죄와 죽음 사이에 질병과 불행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면 질병도 해결된다. 죄와 불순종이 없는 곳에는 질병도 없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면 죄 용서와 함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진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되므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 건강 개혁의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건강에 대한 복음은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업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 개혁의 회복시키는 감화력이 복음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위대한 사업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 복음전도, 515

법은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세워진 보호망이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일어나고, 도덕법을 어기면 사회가 문란해지고, 건강 법칙을 어기면 질병이 생긴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므로 얻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일생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희망인가!

필자는 벧엘 수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일체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급적 약을 사용하지 않고 창조주의 손길로 치유되는 건강 생활을 가르쳤다. 이곳은 부절제와 부도덕의 결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생활을 올바로 개선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강 교육장이다.

벧엘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대 의학에서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생명의 질서, 즉 삶의 원칙을 배우면서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햇빛 아래서 잘못 길들여진 식생활을 바로 잡고 이기적인 정신으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잘못 살아온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회개하며 바로 잡고 있다.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십 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다.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16년을 고생하면서 합병증이 생겨 시력을 거의 잃었고, 간경화로 온 몸에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찼을 뿐 아니라 발등까지 부종이 왔다. 그의 삶은 술, 담배, 스트레스에 절어 있었고, 퇴근 후 회식이 2차, 3차로 이어지며 자정이 넘어서 귀가하기 일쑤였다. 아침에 간신히 몸을 일으켜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출근하는 생활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약은 한 가지씩 늘어났지만 몸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가 벧엘에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에서 오는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건강과 인생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그의 마음은 짓눌리고 있었다. 노환으로 누워 계시는 어머니와 한창 뒷바라지해야 할 자식들을 아내에게 떠맡긴 채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하늘을 우러러 절대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벧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고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였다. 날이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불안 초조했던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한 끼도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는 육식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술과 담배가 없는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며 살았던 그가 인생의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원칙을 배우면서 지나온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약은 처음 온 날부터 끊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사라지고 얼굴색과 소변이 점점 맑아졌다. 2~3주 지나자 시력이 돌아오고, 점차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생명의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부절제한 삶을 살면 또 건강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5:14)고 하셨다. ❖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참된 치료제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이미 천연계에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음식 등을 마련하셨다. 이것들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기도 하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이런 것들을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은 복음이다. 또한 인간의 영생을 위해 창조 이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역시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치료제들 속에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원한 복음이 포함되어 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건강 원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 기별과 영원한 복음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복음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과 육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산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물질 속에 넣어두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며, 그 말씀은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장 참조). 따라서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 화잇주석, 창 1:29

>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의 순결,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를 수많은 사람이 얻지 못하여 죽어 가고 있

다. – 교회증언 5권, 443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하였다면 살았을 뻔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위 많은 치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를 둘 다 파괴하는 습관과 욕구를 조성해 준다. …더욱 호전되는 유일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의사들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하고,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육체적 조직에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치료 봉사, 127.

환자에게 어떤 치료제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대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에 대한 도움을 전혀 무시하고 병자를 치유하지는 않으시며 하나님이 맑은 공기와 물 가운데 준비하신 단순한 치료제들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람들이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치실 수 없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286

천연계의 법칙을 분명히 해서, 그 법칙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병행하는 사업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69 ❖

이적의 위험성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적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선지자의 경고에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52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건강을 주는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시도들이 오늘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병자를 고친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이적을 행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 데살로니가후서 2장 9~10절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인데, 거짓 이적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어지는 선물로써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활의 개혁을 요구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인간의 율법을 세우는데, 거짓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계 13:13~14 참조).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선언에서는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운명을 확실히 볼 수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마태복음 7장 21~23절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 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22

만약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사탄이 행할 이적들을 보고 믿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이한 일이 놀라운 기적들처럼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이적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작해 낸 기만술임을 알아야 한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53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치유의 활동들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므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53

사탄은 어떤 기적이라도 위조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안전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시련을 겪고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기 31장 12~18절에 말

씀하신 표징 가운데서 저들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록하였으되"라는 살아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굳게 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자들은 그날에 가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55

어떤 사람들은 "화잇 여사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수행하라고 주신 사업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적을 마치 하나님의 지도의 표징처럼 바라보는 자들은 기만의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며, 그들은 그럴 듯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사탄은 "거짓 기적들"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내가 쓴 글들을 읽었으나 아무도 내가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때때로 나는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실증되었다(약 5:14~15 인용).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53~54

그리스도가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써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기적

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의 그럴 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역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을 위하여 의료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54

우리는 우리의 위생병원에서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혈류 속에 독소가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물의 사용을 만류하고 있다. 우리 의료 기관에서는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입는 방법 및 사는 방법 등을 현명하게 가르쳐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280 ❖

3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신선한 공기

사람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축복 중 하나이다.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몇 주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살 수 있지만, 공기가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다. 뇌 세포에 산소 공급이 5분만 차단되어도 회복 불능의 손상이 온다. 뇌는 인체의 모든 기능에 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전류를 작용시킨다. 호흡이 아직 진행되고 심장 박동이 얼마동안 계속된다고 해도, 뇌 전류가 끊어지면 회생이 불가능해 진다. 신선한 공기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인체의 전류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우리가 음식에서 얻은 포도당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 적혈구는 백혈구에 산소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백혈구의 역할을 강하게 해준다. 아무리 백혈구가 몸속에 침투해 오는 적을 물리치려 해도 백혈구에 산소와 영양소들의 공급이 끊어지면 절대로 병을 막아낼 수 없다. 병에 걸리는 이유는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적혈구가 백혈구에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할 때 일어난다.

도시의 오염된 공기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선한 공기 속에 있는 산소는 백혈구의 무기이다. 각종 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만성 산소 결핍증이다. 적혈구가 산소를 세포 조직에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서 백혈구가 약해지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세포 조직의 산소 결핍은 저항력을 약하게 만든다. 완전한 건강은 깨끗한 피의 완전한 순환에 달려 있다.

> 건강이 좋아지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피가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준다. 순환이 완전할수록 이 일은 더욱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 치료 봉사, 271

>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 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

해진다. 그런 호흡은 피를 선명한 색깔로 만들어 보내게 되고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의 흐름을 전달해 준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 준다. – 치료 봉사, 272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 되고 공기가 꽉 막혀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특히 추위의 영향에 민감하게 되고 조금만 추위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게 된다. …같은 공기를 반복해서 호흡하므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 치료 봉사, 274

사람은 두 가지 호흡을 해야 한다. 신체에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호흡은 중요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시듯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일은 한 순간도 쉬지 말아야 한다. ❖

깨끗한 물과 청결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 물은 에너지의 주 원천이다. 물은 체내의 모든 세포의 내부에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

를 생성하며 인체는 그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 그것들은 수력발전 댐에서 사용되는 터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수시로 마시는 물에 의하여 수력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피로 회복, 원기 회복,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물을 통한 에너지 생성의 결과로 살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애초에 물로 인한 전기 에너지 생성의 결과로 생겨난 에너지 전환의 생성물이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시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30분 전까지 두 차례 마시고, 매 식후 2~3시간 후부터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두 차례 이상 마시도록 한다.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마셔야 한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신체 기관을 통하여 순환작용을 하는데 이때 신체 조직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전달하고 몸속에 누적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다 물로 채워져 있고 또 물에 싸여있다. 각 관절 사이와 근육과 지방 조직 등 인체 내의 크고 작은 모든 공간마다 약간의 물이 채워져 있어 완충과 윤활 작용을 해주므로 각 세포와 장기 조직들이 마찰과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태아는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을 하는데 이때에 필요한 물은 엄마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므로 임부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이 멈출 때까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식으로 주스나 탄산음료를 먹이지 말고 깨끗한 물을 먹여

야 한다. 탄산음료나 각종 차 종류는 몸에 탈수를 일으킨다. 물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자르고, 녹이고, 운반하여 각 세포에 스며들게 한다. 골수는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곳인데 만성 탈수가 되면 면역체계의 효능을 떨어뜨린다.

그 외에도 인체 안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므로 물 마시는 일은 밥 먹는 것처럼 신경을 써야 한다. 물은 잘 사용하면 독한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다. 이 때 마시는 물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생수여야 한다.

>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막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물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음료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치료 봉사, 237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몸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통증 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때에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간 금식을 하면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신속하게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열이 심한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면 열이 내려갈 것이며, 물의 활용은 보다 효과적이 될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

물은 마시는 용도 외에도 청결 유지에 필수적이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밤에 잠자리에 눕기 바로 전이나 아침에 기상할 때에 하면 특히 유익하다. – 새 자녀 지도법, 461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매우 요긴하다. 불순물은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많은 기공이 쉽게 막혀 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나가야 할 불순물이 다른 배설 기관에 또 다른 부담을 주게 된다. – 치료 봉사, 275~276

또한 의복을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고 있는 옷은 기공을 통하여 배설되는 노폐물들을 흡수한다. 의복을 자주 바꾸어 입지 않거나 빨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이 다시 몸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잘 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 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채소 쓰레기

나 낙엽더미 등을 주택 가까이 놓아두어서 썩게 하거나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라.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집 안에 용납하지 말라. 완전히 건강하다고 인정받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많은 유행성 열병의 원인이 어떤 부주의한 가정이 사는 집 주위의 썩어가는 쓰레기에서 발견되었다.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내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 치료 봉사, 276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런 방법 중 하나이다. 찬물 혹은 시원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온수욕은 땀구멍을 열어 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 순환 작용을 고르게 해 준다. – 치료 봉사, 237

적절한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순환작용이 촉진되고, 혈액이 피부의 표면까지 도달하여 더욱 쉽고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가 다 같이 활기를 얻게 된다. 근육은 더욱 유연해지고, 지력은 더욱 명석해진다. 목욕은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 목욕은 내장과 위장과 간장을 도와주고, 그

각 기관에 건강과 힘을 제공해주고 수화를 촉진시켜 준다. – 치료 봉사, 276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런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수치료법의 진가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 치료 봉사, 237

물을 이용한 치료법을 현명하고 주의 깊게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치료제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주신 분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물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 사람은 두 가지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물이시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다(사 55:1 참조).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38).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다. ❖

적절한 운동

힘은 쓸수록 생긴다. 운동은 몸 전체의 생체기능이 총 동원되는 활동이다. 운동을 하면 뇌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므로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며 정신적 우울에서 깨어난다. 과로로 죽는 사람보다 운동 부족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너무 바쁘다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된다. 운동은 인간 생존 법칙이다.

>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 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 치료 봉사, 238

힘차게 운동을 할 때 혈액 순환은 15~20배로 증가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혈액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 배설이 잘 된다. 그리하여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걷기 운동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없다. 경쟁심을 유발하는 스포츠보다 걷기를 하면 혈액 순환이 크게 증진된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장딴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 박동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이 분출되면 혈관을 따라 신체의 말단 부위까지 산소와 영양 물질을 나누어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걷어 배설 기관을 통하여

내보낸다.

> 걷기는 근육을 더욱 많이 움직이게 해 주므로 말이나 차를 타는 것보다 더욱 좋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 – 치료 봉사, 240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운동은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는데 어떤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회복력이 있다. 이러한 운동에는 화단을 가꾸거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에서 일을 하는 것, 집과 집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등이 있다. 의욕을 상실하고 장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깊은 우울증으로 정서가 불안해 질 때,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맑은 공기로 집안을 환기시키고 집안 구석구석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라. 그러면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환자들이 가볍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고통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활동은 인체의 모든 기관을 새 생명으로 일깨워준다. 환자들에게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이다. 허약한 환자일수록 더 활동해야 한다.

> 신체적 운동에 사용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끊임없이 책만 들여다보면서 옥외 운동을 등한히 하는 학생은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신체의 여러 기관과 기능에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은 각 기관의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계속

적으로 두뇌를 혹사하면서 다른 기관들을 무력한 상태에 버려두면 육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39

사람은 두 가지 운동을 해야 산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않고 아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받은 말씀은 소멸되어 버린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 생애의 빛, 80 ❖

햇빛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받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간다. 또한 햇빛은 선지자가 언급한 가장 좋은 치료제 중 하나이다.

>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 치료 봉사, 127

햇빛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하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반면에 비타민 D 수치는 높아져 칼슘의 흡수와 저장 조절을 활발하게 하여 치아와 골격이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된다. 피 속에 칼슘량이 충분해지므로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 정서와 신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서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된다. 심장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햇빛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피부는 윤기가 나고 탄력이 생기고 혈색이 좋아지며 저항력이 강해진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그렇지 않은 피부보다 살균력이 세 배나 더 높다고 한다.

>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건강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저지대에서 발생하는 독기와 안개가 없는 장소에 집을 건축함으로 하늘의 생명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두꺼

운 커튼을 걷고 창문과 덧문을 열라.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포도넝쿨이 가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햇빛을 가릴 정도로 나무들을 집 가까이 심지 말라. 햇빛은 휘장과 양탄자를 퇴색시키고, 사진들을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햇빛은 어린아이들의 볼에 건강미가 넘치는 혈색을 가져다줄 것이다. – 치료 봉사, 275

옥외 활동은 육체와 정신에 유익하다. 이것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노약자에게 햇빛은 유익하다.

운동과 거저 받는 풍성한 공기와 햇빛의 사용, 즉 하늘이 사람에게 준 축복들은 많은 경우에 연약한 환자들에게 생명과 힘을 줄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2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의 빛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영적 생명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동식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요 1:1, 4, 14 참조).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오직 구주 예수님만이 죄로 죽어 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 산상보훈, 39~40 ❖

휴식과 금식

몸은 휴식을 통하여 회복한다.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져 생체 리듬이 깨지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쉬라는 인체의 명령이다. 휴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이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용하다.

어떤 사람들은 과로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휴식, 걱정에서의 해방, 식생활의 절제 등이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다. – 치료 봉사, 236

몸은 휴식을 통하여 재생되고 복구된다. 그러므로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잠이다. 야간 근무는 몸을 허약하게 한다. 반면에 정신과 육체의 적절한 휴식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밤 깊도록 공부하고 낮잠을 자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

이 되었다면 그들은 적당한 시간에 취침함으로 그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아침에 그날의 책임을 위하여 다시 기력을 얻어서 일어날 것이다. – 새 자녀 지도법, 363

밤 12시 이전에 취하는 2시간의 숙면은 자정 이후에 잠드는 4시간의 잠보다 훨씬 좋다. – 7MR, 224

감기나 폐렴 등 급성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은 모두 휴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런 때 적당한 휴식을 취해 주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짐승들은 병이 나면 회복 될 때까지 먹지 않고 쉰다. 짐승이나 미물들도 이런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지 않는다.

금식은 몸에 휴식을 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 활동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체에 쌓여 있는 노폐물 때문이다. 사람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몸속에 독소가 쌓인다. 이런 경우, 며칠간 금식을 해주면 몸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는 생체작용을 일으키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자연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리의 인체는 새로 들어오거나 잔재해 있는 독소를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스스로 노력한다.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게 되면 더욱 강한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한다. 그럴 때 열이 오르고 두통이 온다. 통증, 마비, 신경쇠약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병이라고 한다. 이런 때에는 하늘이 주는 치료제인 신

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며칠간 물금식이나 과일식을 하게 되면 몸의 활동의 방해를 일으키던 노폐물이 제거되므로 여러 질병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데 탐닉하는 것은 소화기관들을 무겁게 하며 신체에 발열 상태를 조성한다. 피가 불결해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리게 한다. …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체력에 억지로 지운 짐을 덜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가 쉴 기회를 주라. 물을 주의 깊고 알맞게 사용함으로 신체의 발열 상태를 낮추라. 이 노력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생리작용을 도울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191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

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9

열이 심한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것은 그 열을 낮출 것이며, 물을 사용함으로 보다 효과 있게 할 것이다. … 그러나 열기가 떨어지자마자 주의 깊게 현명한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 심지어 열이 나는 동안이라도 만일 음식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으면 적당한 분량의 단순한 음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해가 적을 것이다. – 교회증언 2권, 384~385

고기와 양념을 많이 한 그레이비와 여러 가지 종류의 기름진 과자와 설탕 조림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식욕에 방종해오던 사람들은 즉시로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자양분 있는 식물을 맛있게 먹을 수 없다. 그들의 입맛은 너무나도 변질되어 과실과 단순한 빵과 채소로 된, 건강에 좋은 식물을 향한 식욕이 없다. 그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먹는데 방종해왔던 것과 아주 다른 음식을 단번에 맛있게 먹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들이 단번에 단순한 음식을 즐길 수 없다면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는 것이 좋다. 그 금식이 양약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판명해 줄 터인데 그 이

유는 학대받은 위장이 오랫동안 필요로 해왔던 휴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며 참으로 배가 고파서 단순한 음식으로도 허기가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남용되었던 입맛이 회복되어 그 정상적인 상태를 얻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데 꾸준히 극기한다면 오래지 않아 단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이며 미식가가 그 기름진 진미를 즐기는 것보다 더욱 큰 만족으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90

금식이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 금식, 안식, 휴식, 잠, 쉼, 이것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쉼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뜻이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할 때에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제거되고, 치유를 위한 생체 작용이 일어나므로 건강이 회복된다. 이것은 영적 금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참된 금식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자기포기를 의미한다.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환자에게 건강 기별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에게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되신다. ❖

4

병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몸의 각 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그 몫에 해당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 지고 그 피가 각 기관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여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제공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가장 잘 공급할 수 있는 음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식욕은 안전한 지침이 못 된다. 그릇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식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입맛은 건강을 해치고, 활력을 약하게 만드는 비건강적인 음식을 찾는다.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

들 중에는 잘못된 식생활의 결과로 생긴 것이 많다. 살기 위해서 먹지만 잘못 먹으면 병이 생기고 죽음에 이른다.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식생활을 위한 창조주의 원래 계획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두말 할 것 없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먹으라고 하신 음식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음식에는 치료제(약)가 포함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은 모든 과일, 곡식, 채소, 견과류 등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음식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

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 치료 봉사, 296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의 구조는 신비롭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드신 그분이 매순간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생명은 지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몸에 필요한 영양은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식물로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창조주께서 먹으라고 명하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음식물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몸이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므로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물질을 몸이 만들어 쓰게 된다. 몸에 들어온 소량의 물질로 각 기관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되게 하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음식을 먹을 때에 인간이 분석한 학문을 따라 먹을 것이 아니라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영양관리에 가장 안전한 지침이 된다.

건강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기 바란다.

좋은 빵 한 덩이에 실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 원고, 95.1901 ❖

올바른 식사법

식사는 매 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하되 과식하지 말며, 배고프지 않을 때는 다음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 후 다음 식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식간에는 물 이외에는 주스 한 잔이나 땅콩 한 알도 먹어서는 안 된다. 간식이나 과식은 금물이다. 사람들이 단순하고 영양 있는 식물을 규칙적으로 또 원칙을 따라 먹는다면 피로를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생기는 장애가 죽음을 초래하는 질병의 시초가 된다. 많은 경우 잠자기 전에 허전하여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습관적이거나 낮 동안에 소화기관을 너무 과중하게 사용한 때문에 느끼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매 끼니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다음 음식이 들어가는 것 역시 간식이 되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과식은 얼마나 먹었느냐 보다는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식사 후 다섯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과식한 것이다. 특히 취침 바로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취침 전에 먹는 음식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아침에 흐리멍덩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되고, 아침 식사에 대한 의욕 또한 없어진다. 휴식을 위해 잠자리에 들 때에는 위도 모든 일을 끝

내야 하며, 신체의 다른 기관들처럼 쉬어야 한다.

> 많은 경우에 허기가 지는 원인은 온종일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분량의 음식을 위장에 밀어 넣은 불건전한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소화기관이 너무 심한 부담을 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짐을 진 소화기관들은 피곤해진다. 그래서 고갈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고로부터 완전히 쉴 시간을 요한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3

음식을 매우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는 것은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 만일 음식이 차면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음식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위장의 활력을 끌어간다.

너무 짜거나 맵거나 자극이 강한 음식은 피한다. 소금에 절인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자극적인 양념은 소화 작용을 방해한다. 어려서부터 자극이 강한 음식에 길들여지면 싱겁고 순한 음식을 싫어하게 된다. 고추, 마늘, 파, 생강을 넣어 만든 음식은 위장을 혹사시킨다. 너무 짜게 먹거나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처음에는 위장의 얇은 막을 파괴하고 위막이 파괴되면 위염이나 위암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감각을 파괴하고 피를 뜨거워지게 하며 동물적 성질이 나타나 도덕적, 지적 기능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되도록 짜지 않게 단순하고 영양 있는 식탁을 마련하도록 한다.

음식과 함께 위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을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유동식은 소화를 더디게 하며 위를 허약하

게 하고 건강을 약화시킨다. 물은 식사 때에는 마시지 않으며 식후 2~3시간 후부터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 자유롭게 마신다.

모든 음식은 자연 그대로 잘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은 오래 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침이 음식과 잘 섞여서 소화 작용이 원활하게 된다. 또한 침 속에는 제독 성분이 있어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제거한다.

격렬한 운동 직후나 많이 피곤할 때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식사 직후에는 에너지를 강력하게 흡수하므로 식사 직후에 정신이나 육체에 부담을 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흥분될 때, 걱정될 때, 마음이 급할 때는 휴식과 안정을 되찾기까지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위는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가 병들면 약화된 소화기관을 돕기 위하여 뇌에서 활력을 불러낸다.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면 뇌는 충혈이 된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거나, 또 육체적 활동이 적을 때에는 적게 먹는 것이 좋다.

고기와 그 밖의 유해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식, 폭식을 할 때 소화기관은 과로한다. 과식을 하면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위에 모이게 되므로 수족을 차게 하며,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계속하여 과식하는 이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를 배고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의 과로 상태에서 오는 느낌일 뿐이다.

식사는 하루 세 끼보다 두 끼를 먹는 것이 좋다. 두 끼로 바꾸면 처음에는 다소 현기증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데 특히 저녁 시간에 허기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면 현기증은 곧 없어지고 건강을 누릴 수 있다.

아침 식사는 다른 때보다 잘 먹어야 한다.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아침 식사로 공급 받아야 한다. 두 끼 식사를 할 경우,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녁에는 몸이 휴식을 통해 회복하고 재생시키는 활동을 원활하게 하므로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환자 회복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유익하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과일 한 가지로 간단하게 먹든지 금식을 함으로 위장을 쉬게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세 끼 먹는 사람들이 허기 때문에 밤참 혹은 네 번째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식사를 하지 않고는 잘 수 없을 것 같이 느끼는 하나의 그릇된 습관이다. 비정상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것은 불건전한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소화기관이 너무 심한 부담을 졌기 때문이다. 부담을 진 소화기관들은 피곤해지고 고갈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쉴 시간을 요한다. 소화시키는 수고로부터 위장이 쉴 시간을 갖기 전에는 다음 식사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세 번째 식사를 할 것이라면 가볍게 할 것이요, 잠자기 몇 시간 전에 해야 한다.

기름지고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식탁을 채우지 않게 해야 한다. 위가 혼란하면 정신 상태도 혼란하고 확실성이 없어진다. 이것이 흔히 성냄과 무자비함의 원인이 된다. 끼니마다 서너 가지 단순한 음식물을 취하라.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먹으라.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

라. 이렇게 하고도 유익을 받지 못하는지 경험해 보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중대한 결과가 따르는 결정을 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다.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때는 음식을 소식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누구보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에 더 절제해야 한다.

위장을 괴롭게 하는 것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무분별하게 먹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권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업을 최대한도로 진전시킬 계획을 세우기에 스스로를 부적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 없고, 회의에서 마땅히 그렇다고 '아멘' 해야 할 때에 그는 '아니오'라고 한다. 그는 아주 큰 오점을 남길 제의를 한다. 그가 먹는 음식이 그의 두뇌의 힘을 마비시켰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53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고린도전서 6장 19절 ❖

식사 배합법

음식물의 배합이 잘못됨으로 소화 장애가 생기며 피가 불결해지고 두뇌가 혼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식사 배합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식초는 위장 안에서 발효의 원인이 되고, 소화에 지장을 주고 음식을 부패시킨다. 그 결과 피는 영양분을 공급 받지 못하며 술을 먹은 것과 같은 불결한 피를 만들게 되므로 간장, 신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설탕은 위장 안에서 발효의 원인이 되고,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품을 만든다.

>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그것은 살아 있는 기관의 작용을 방해한다. – 교회증언 2권, 369

> 음식물의 부적당한 배합으로 장애가 생기고, 발효가 시작되고, 피가 더러워지며, 두뇌가 혼란해진다. 과식을 하거나 한 끼의 식사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먹는 습관은 빈번히 소화 불량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섬세한 소화기관에 심한 해를 끼치게 된다. … 달갑지 않은 징조들이 경고를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통당하는 길밖에 없다. 질병이 건강을 대신한다. – 교회증언 7권, 257

>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 놓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두 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여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 끼에 과일을 먹을 것 같으면 다른 끼에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식사는 늘 변경시켜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요리한 같은 음식이 끼마다 또는 날마다 식탁 위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음식을 자주 변경할 때에 식사는 더욱 맛이 있고 신체 조직은 더욱 증진된다. – 치료 봉사, 299~300

경험 있는 한 의사가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그대들의 식사를 보니, 당신들은 너무 여러 가지를 잡수십니다. 과일과 채소를 한 끼에 잡수시면 위에 산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피가 더러워지며 소화가 불완전해 지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지 않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그대는 신체의 각 기관을 주의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대는 식사문제에 있어서 원인에서 결과를 추리해 내야 한다. – 서신, 312.1908 ❖

건강요리의 기본원칙

제일 좋은 식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다. 요리를 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본래의 맛과 영양을 살리도록 한다. 더

불어 음식을 요리할 때에는 맛이 있고 간이 맞아야 하고 소화가 잘 되게 요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량의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 무염식은 요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요리한 음식을 무염식으로 하면 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며 따라서 체력이 약해진다.

> 음식물은 주의 깊게 선택되고 지혜롭고 기술적으로 조리되어야 한다. – 가정과 건강, 86

> 식탁 위에 비건강적으로 요리한 음식을 올려놓는 것은 죄이다. 왜냐하면 식사문제가 모든 신체조직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위를 불쾌하게 만들어 성질을 나쁘게 만들지 않을 방법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바라신다. – 원고, 95.1901

각종 양념

- 모든 간은 소금으로 한다.
  혹시 건강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쓸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재래식 간장, 된장, 고추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모든 양념은 천연양념을 사용한다.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넛 등을 볶은 후 갈아서 사용한다.
- 단맛은 꿀이나 조청으로 내되 아주 소량으로만 사용한다.

- 신맛을 낼 때에는 레몬 즙이나 매실청을 사용한다.
  식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기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볶는 음식은 물이나 야채수로 볶는다. 구울 때는 기름 묻은 종이로 프라이팬을 닦아내고 사용한다.

현미밥

- 현미 멥쌀+현미 찹쌀+잡곡류 한 가지로 한다.
  한 끼에 잡곡은 한 가지로만 하되 매 끼니마다 번갈아 가며 넣는다. (밀,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팥, 율무, 녹두 등)
- 밥은 불에 올리기 한 시간 전에 씻어 두면 좋으나 그 이상 오래 물에 담궈 두지 않는다.
- 보통 밥(흰 쌀밥) 짓는 방법으로 하되 10–20분 정도 뜸을 더 들이면 된다.
- 압력솥을 사용해도 좋고 보통 솥을 사용해도 된다.
- 밥은 질게 하는 것보다 고들하게 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 짠 반찬을 함께 먹지 않고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율무밥, 밀밥, 옥수수밥, 조밥은 찹쌀만 넣고 소금 간을 약간 한다.
- 모든 떡은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고 설탕을 넣지 않는다.
  설탕이 들어가면 소화되기 이전에 부패하므로 속이 거북하게 된다.

국

- 야채수 만들기 : 무, 다시마, 건 표고버섯을 넣고 적당히 물을 붓고 끓인다. 이때 무 색깔이 누르스름한 색깔이 나도록 끓이면 맛이 없어지므로 무가 흰 빛을 내고 있을 때 불을 끄고 건더기를 다 건져낸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둔다.
- 모든 국을 끓일 때 이 야채수를 사용한다. (미역국, 국수 물, 떡국, 쑥국, 토란국 등)
- 양념간장이 필요할 때 야채수를 사용하되 소금, 양파, 피망 다진 것, 구운 김을 잘라 넣고 천연 양념을 섞어 사용한다.

생야채 무침

- 각종 야채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한 끼에 2-3가지로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소금과 천연 양념을 적당히 넣고 버무린다. 이때 토마토를 갈아서 함께 무쳐도 좋다.
- 야채는 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매 끼마다 요리하지 않은 생야채를 한 가지 이상 꼭 먹도록 한다. (오이, 당근, 토마토, 케일, 브로콜리, 피망, 비트, 야콘, 고구마 등)

볶음 요리

- 잎채소를 나물로 할 때 물에 삶아서 씻고 짜서 무치면 채소에 있는 영양이 다 빠져 나가게 되므로 치료 효과가 없다. 야채는 깨끗

이 씻어서 야채수를 조금 넣고 소금 간을 맞추어 볶은 다음,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낸다.

- 열매채소나 뿌리채소를 익힐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때 기름 대신 야채수를 사용해서 볶는다. (호박, 가지, 도라지, 감자, 양파, 연근, 우엉 등)

이상 소개한 요리법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극단을 피하고 사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먹는 것에 부절제 하므로 자신들의 건강과 성격을 망친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철저히 해야 하듯이 건강 개혁에 관하여 주의 깊게 배워야 할 것이다.

>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보다 훨씬 칭찬을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달란트는 열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요리는 생명과 건강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모든 재능 중에 가장 귀중하다. – 의료봉사, 271

>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는 모든 부인들이 배워야 할 과학인 동시에 보다 더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음식을 맛있게 하고 동시에 단순하

고 영양 있게 만드는 데는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요리하는 자들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음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요, 보다 더 맛이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 치료봉사, 302~303 ❖

육식의 위험성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음식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것들이 사람의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1장 26~28절

홍수 후 지상의 모든 초목이 멸절될 때까지 인간에게는 육식이 허

락되지 않았다.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음식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다.

>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지 않으신 것은 질병과 불순종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품성을 고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기를 제거하셨다. –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390

>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세상의 의사들은 인간 가족 중에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기인함을 안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6

>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동물을 다루는 과정 자체가 그들 속에 질병을 일으킨다. 가능한 한 건강에 유익한 방법으로 다룰지라도,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몰고 가는 과정을 통해 동물들은 흥분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병든 동물의 체액과 고기는 혈액 속에 직접 받아들여지며, 사람의 몸 속을 순환하여 동일한 체액과 살을 이룬다. 이렇게 하여, 동물의 체액이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만일, 그 사람의 혈액이 이미 불결하다면,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혈액은 크게 악화된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지적·도덕적·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육식은 신체 조

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 교회증언 2권, 63

돼지고기가 비록 가장 평범한 식품 중의 하나일지라도 가장 해로운 것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보이기 위하여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고기가 사람에게 적당한 식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하셨다. 돼지고기는 신체를 연주창으로 가득 채우고 특히 따뜻한 기후에서는 문둥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기후에서 돼지고기가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추운 기후에서보다 훨씬 더 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돼지고기를 먹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다. …

돼지고기를 먹으면 연주창, 문둥병, 암을 일으키는 체액을 만들어 낸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 –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392~393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어다"(신 14:8)라고 하시었다. …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그 고기가 사람의 식용이 되었던 때는 없었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92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이사야 66장 17절

이 세상은 다 병들어 가고 있으며 질병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정신병, 전염병, 각종 암 등 병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마시고 먹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심각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건강 기별이야말로 모든 질병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독자들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건강 원칙들을 실천함으로 질병이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탄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 마지막 날 사건들, 27

사람들은 결핵균과 암종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기타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전염된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88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어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으나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와 같이 되었다. – 교회 증언 6권, 10

육식은 언제나 인간 가족에게 저주가 되어 왔다. 동물들에게 있는 질병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고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데 있다. –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11 ❖

건강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반드시 삶에 개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건강 개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개혁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곧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애타는 초청을 들어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사 55:7).

사탄이 식욕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인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 절제생활, 276

건강 개혁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큰 사업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다시 내게 보였다. 건강 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손과 몸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소홀히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경고의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는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천사는 그 기별을 선포한다. 사람들이 항상 십계명을 순종하여 그 계명의 원칙들을 생애에 실천하여 왔다면, 오늘날 세상에 편만한 질병의 저주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 교회증언 3권, 161

식욕과 정욕의 방종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 건강에 관한 권면, 110

육식은 몸의 전신을 교통하는 전류의 흐름과 뇌신경 계통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영의 감화력을 마비시킨다. – 건강에 관한 권면, 115

육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같은 욕망은 강화되고 영성은 약화된다. 그대와 같이 과거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맡긴 적이 없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복음전도, 663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해서 반밖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서 다시는 저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 교회에 보내는 권면, 230

우리의 먹고 마시는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혹은 주님께서 그분의 강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무리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낸다. – 절제생활, 141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산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건강식을 하듯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하셨다.

창세기 1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으며, 창세기 1장 29절에는 이것들을 사람이 먹을 음식물로 지정해 주셨다. 이 음식물 속에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생명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은 신앙으로 먹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초목들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 원고, 114.1899 ❖

5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증

많은 사람은 마음과 신앙을 무시한 채 육체적인 건강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지면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기에 정신적 활력과 영적 힘은 신체적 힘과 활동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면 건강한 정신과 균형진 품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기심은 인간관계를 깨어버린다. 그리하여 마음과 육체에 고통을 주는 병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정신적 고통이 가져다주는 우울증은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까지 파멸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살인, 자살, 이혼, 가출 등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오는 결과들이다.

>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하고 있다. … 가정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고통은 마치 궤양처럼 심령을 갉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정신 이상의 원인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 교회증언 5권, 444

몇 년 전 캐나다에서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는 중, 육십 대 부인이 내 방을 찾아왔다. 그 부인은 한꺼번에 13가지의 약을 먹는다면서 약 가방을 열어 놓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 등 모두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병명을 나열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놀랐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병만 고치면 이 약 다 필요 없이 병이 싸~악 낫습니다."

"그 한 가지 병이 뭡니까?"

"우리 영감이 보기 싫은 병입니다. 제발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 부인은 울먹이며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놓아주지를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부부들도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다.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 오늘날 인간관계는 갈등 속에서 깨지고, 병들고, 우울증에 걸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자살, 살인 등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 동반 자살, 이혼, 별거, 폭행, 난폭 운전 등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자 수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정상인들처럼 사회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이란 마음이 아픈 병으로서 원인은 오늘날 성인병이 오는 원인과 동일하다. 부절제한 식생활, 부도덕, 죄책감, 과로, 스트레스, 충격, 갱년기 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생긴다.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할 심각한 질환인데도 현대 의학이 성인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울증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여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우울증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 마음의 고통을 혼자 감당해 나가면서 항상 마음이 괴롭고 어둡다.
- 온 몸에 힘을 잃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질 뿐 아니라 신앙적 힘도 잃게 되며, 불안하고 초조하다.
- 일이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 신경질적이며 난폭한 언동을 자주 한다.

- 마음의 아픔을 자주 호소하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
-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는 호소를 자주 하며 매사에 의욕이 없다.
-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한다.
- 정서, 감정, 식욕, 말, 행동 등에 절제가 되지 않고 균형이 깨진다.
- 항상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며 잘 울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이 이해받고 동정받기를 원하며 이기적으로 변한다.
- 신경이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좌절한다.
- 상대방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상상하고 추측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대로 믿고, 적을 만들며,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진다.
-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는 남편이 신고 다니던 구두만 봐도 상처가 재발된다. 조금만 아픈 상처를 건드려도 다 터져 나온다. 결혼 생활 오십 년이 지나도 처음 결혼해서 상처받은 일을 다 끄집어낸다.
-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사는 동네 이름만 들어도 상처가 재발 된다.
-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든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고 자주 가출을 한다. 그런 자녀는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나쁜 아이로 성장한다.

"곪은 상처는 바람만 불어도 아픔을 느낀다."고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고, 음성도 듣고 싶지 않게 되며 자기를 아프게 하는 몽둥이가 없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한 충동을 느낄 때에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기 스스로가 몽둥이를 피하기 위해 가출, 이혼, 자살까지 간다.

이런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 되었으니 고치라"고 하는 충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충고한 사람까지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상한 심령에는 참된 치료제가 필요하다. ❖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가?

우울증 역시 치료될 수 있는 병이다. 자신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몰아붙이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면서 치료를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음에서 생긴 병을 다룰 때에는 세심한 이해와 지혜가 필요하다. 병든 마음, 낙망 중에 있는 마음은 이를

어루만져 주는 부드러운 치료제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가정 문제는 심령과 육체의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선 우울증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거해야 하므로 모든 생활 패턴을 건강적인 생활로 바꾸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담을 주던 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환경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그 환경과 사람을 잠시 떠나서 조용히 휴양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환자에게는 마음의 아픔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자 자신이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명심하라. 사람이 하려고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도와주신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기 사랑, 곧 이기심에서 온다.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신적 활력을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므로 나를 바꾸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를 살피면서 잘못된 자신을 바로잡고 회개해야 한다.

우울증은 쉽게 치료될 수 있지만 언제나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삼십 대 젊은 엄마가 찾아왔다. 입을 열자마자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 생활 칠 년 만에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 집을 뛰쳐나온 두 아이의 엄마였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친정으로 피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6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일 년 후 임신으로 인한 입덧 때문에 언쟁이 벌어졌다. 열 달 내내 입덧이 심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던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불평에 아내는 섭섭하기만 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었다.

첫 아이를 낳고 일 년 만에 또 아이를 임신했다. 입덧은 여전했고 흐트러진 아내의 모습과 정돈되지 못한 집안 분위기, 때맞추어 밥상을 챙기지 못하는 아내에게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당연히 모든 여자가 다 하는 일인데 왜 너는 못하느냐며 윽박질렀고 대꾸하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이 무서워 입을 닫고 살았지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런 일은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이혼해도 혼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 참고 살아보려 했으나 날이 갈수록 불안, 공포, 긴장이 계속되면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잠을 잘 수 없고, 몸과 마음에 힘을 잃고 말았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욕마저 사라졌다. 아이들이 놀다가 문을 여닫는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폭력 소리로 들렸고, 퇴근하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점점 남편을 피하다가 일 년 전부터는 각방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다. 견디다 못해 또다시 친정으로 갔는데 딸의 심각한 상태를 알아차린 친정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벧엘수양원을 찾아 온 것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참고 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그대로 두면 이 여인은 정신 질환으로 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경우 원인을 찾고 문제를 풀어 해결하는 것이 부부 각자에게 필요하다.

요양 생활 3주 쯤 지났을 때 그녀는 상당히 편안해진 모습으로 내 방을 찾아왔다.

"생각해보니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친정에 맡겨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사실 남편의 폭력에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 · · "

그녀는 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남편 쪽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결심은 곧 허물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날 오후 남편의 전화번호를 받아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퇴근 후 벤엘을 찾아왔다. 그러면서 대뜸 "저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와 있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묻는 것이었다.

"아니, 아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는지 남편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내 자식을 나무라듯 몇 마디하고는 아내의 상태를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남자가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걸핏하면 친정에 가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지가 잘하는데 내가 화를 냅니까?" 퉁명스런 경상도 말투 그대로였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아내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 못 가서 정신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 텐데요. 어느 길을 택하기를 원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 상태에서는 두 길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잠시 후에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몽둥이를 버려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대단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기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차분해졌다.

"그럼, 아내를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세요."

일 년쯤 지난 후 건강 세미나에서 우연히 그녀의 친정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요즘 딸이 어떻게 사느냐고 했더니, 그 후에는 사위의 폭력이 없어졌다며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서로 노력하라. 이 부부의 문제는 간단하다. 몽둥이를 버리면 다시 회복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건강 문제든 부부 문제든 어떤 것이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

에 불행을 자초한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모두 다 받음으로 변하는 생명의 법칙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적인 생활환경이 필요하므로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고 모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제거하고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희망적인 삶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과 생활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온 가족이 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일 좋은 치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좌절된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복음이다. 신앙생활은 환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회복에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 준다. 건강 법칙을 잘 지키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책이다.

> 슬픔과 염려는 단 하나의 죄악에 대한 치료책도 되지 못함은 물론 큰 해까지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기쁨과 희망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 주는 동시에 "얻을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 재림신도의 가정, 431 ❖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스트레스는 정신뿐 아니라 육체의 조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받는 것이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뜻을 정하고,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죄 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므로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닐뿐더러, 천국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롬 3:10~12 참조).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사랑은 오직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에만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받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나눌 때 어느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라.

죄인이 행하는 죄는 죄를 행하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희생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구주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해치는 사람을 원망하기 보다는 죄의 희생물이 되어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한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의 고통을 느낄 때 깊은 동정심으로 다가오신다. 그러고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고 하시며 그 죄로부터 죄인을 건져주시는 것이다.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다 다르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롬 9:21 참조).

훌륭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때때로 틀렸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다양한 다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편 133편 1~3절

다 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들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이 형성되게 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므로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출애굽기 19장 5절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라.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갈등이 일어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많은 경우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전 12:13)이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으로 말미암았기에 우리의 필요 역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은 믿음의 관계로(창 2:1~3 참조), 사람과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로(창 2:18 참조) 살도록 계획하셨다.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받은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다. 이 법칙이 인간관계에서 실천될 때 사람에게 기대하므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 시편 146편 3절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는 이 다섯 가지 명제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잘못되므로 병과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이 모든 문제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과의 믿음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건강 세미나가 시작되던 첫 날, 사십 대 후반의 여성과 상담을 하였다. 첫 마디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몇 년 전부터 이 집회에 오고 싶었는데도 한 가지 두려운 생각 때문에 여태껏 망설였어요. 이번에는 몸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으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요?"

"저는 오래 전부터 원장님의 건강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만약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남편을 용서해 줄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너무도 의외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 맺힌 사연이 있었다. 본인은 이화여대, 남편은 서울대 출신으

로 각각 명문 집안끼리 만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남매를 낳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도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단다.

그러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 여전히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그 누가 의심했겠는가. 친구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가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되는 순간,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간신히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다. 남편이 잠시 실수를 할 뿐이지 자기를 버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여전히 가정에 충실했다.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의 거동을 살폈는데, 그 여자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척할 경우,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상했기에 입을 열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6개월쯤 지나도록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집안에 있는 가방을 다 꺼내어 남편의 소지품을 모조리 챙겨 넣고는 현관문 앞에 두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즉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가방을 차에 싣고 말 한 마디 없이 떠나 버렸다는 것이다. 행여나 하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남편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시 깨어난 그 여인의 가슴에 한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 후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림을 차린 것을 알았다. 이미 떠나 버린 남편을 체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 보았으나 날이 갈수록 가슴 속에는 한 겹, 두 겹 … 한이 쌓이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소화제를 먹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무 일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 세월을 십여 년 살아오면서 마음과 몸은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면서도 누구도 풀어 줄 수 없는 한 맺힌 나날을 보냈다.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끼면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었던 그녀였다.

"내가 남편을 용서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을 잃은 배신감에, 그를 미워하는 증오심까지 더했으니 "원수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물어보았다.

"자매님이 지금까지 십 년이 넘도록 그 남편을 미워하고 살 때에 자신에게 유익했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 고통으로 죽을지언정 그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에 이보다 더한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따를 텐데

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한 맺힌 여인의 아픔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풀어줄 수 없었다. 잊으라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원수병을 고쳐 줄 의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상한 심령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다.

세미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날 아침 강의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면서도 인간의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기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강의했다.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몸에 피가 흐르듯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한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흐르는 사람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으며 상한 심령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남을 기쁘게 하려 하면 자기가 먼저 기뻐진다. 남을 화나게 하면 자기가 먼저 화가 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자연의 법칙이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하신다. 원수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원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욱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하신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축복이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허락이다.

아침 강의를 마치고 모두 식당으로 갔지만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교만,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떠나가는 남편에게 한 번도 눈물로 매달려 사랑을 호소하지 못할 만큼 자존심이 강했던 여자,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똑똑하고 교만했던 여자, 이런 아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남편은 변명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나 버렸을까!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를 찾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기를 떠나 버린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용서받을 죄인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에 사랑의 주님이 임하신 것이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내 곁에 다가왔다. 눈에는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랫

동안 덮여 있던 먹구름이 지나간 듯 표정은 아침 햇살보다 더 밝고 명랑했다.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엘렌 화잇의 말이 떠올랐다. 그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감동적인 간증이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악몽을 후회와 회개로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포옹했다. 어떤 인간 의사가 고쳐줄 수 없는 고질적인 원수병은 이제 사라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가 존재하는 한 원수병은 사라질 것이다.

>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 로마서 12장 19절

보복하지 말라. 원수 된 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이르러올 뿐이다. 흉측한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용서와 사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욕을 듣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실 때 보복하지 않으셨다. 욕을 들었다고 욕하지 않으신 분, 손가락질 당했다고 갚지 않으신 분, 인간의 잔혹함이 그분에게 채찍을 가할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던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이사야 53장 4~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빌립보서 2장 5절 ❖

6

건강 생활 실천하기

아는 것을 실천하라

독자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 전체를 잘 읽었을 것이다. 본 장은 그동안 벧엘 수양원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 하나님의 처방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한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함으로써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이 책을 읽고 창조주가 계신 것을 알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생활 속의 천연 치료제들을 잘 사용하면 누구에게나 회복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형편상 요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이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 이를

실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직장인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조절하여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면 건강회복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혹은 다이어트, 미용, 노화 방지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특히 이 생활을 계속하면 체중조절이 가능하다. ❖

적용하는 방법

암으로 인해 수술을 했거나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약을 끊고 건강 생활 일과표에 따라 잘 실천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아직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항암제를 쓰지 않고 있는 암 환자들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일으켜 자연치유가 일어나므로 통증이 사라지고 암의 크기가 줄어들다가 없어진다.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위급하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후에라도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건강 생활 실천하기'에 들어가도록 하라. 건강 생활을 통하여 받아들인 치료제들은 몸 안에서 강력한 자연치유력을 일으킨다. 따라서 환자나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건강 생활 실천하기'는 다 필요하다.

암에 걸렸을 때 뿐 아니라 염증이 생겼을 때, 자궁근종을 비롯한 혹이 생겼을 때,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앓을 때,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심장협심증이나 뇌경색, 고혈압, 당뇨, 관절염, 통풍, 자가 면역 등으

로 인한 각종 증상들이 있을 때 금식이 큰 도움이 된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2~3일이나 그 이상 물만 먹는 금식을 할 수 있고, 저체중이거나 당뇨 환자들은 금식을 하지 말고 과일식을 2~3일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용하던 약은 중단하는 것이 좋다. 이 때에는 약이 하던 일과 약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몸이 스스로 하게 된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바로 생명에 지장이 오는 환자는 금식을 하지 말고, 소식이나 과일식을 하면서 약을 줄여 가다가 몸 상태가 좋아지면 약물을 끊도록 한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이 대부분 사라지는데,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 혈당을 체크하여 200이상 올라가면 아주 소량의 인슐린을 사용하여 혈당을 100~120 사이로 조절해야 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동안에 평상시 사용하던 인슐린 양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혈당이 올 위험성이 있다. 혹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즉시로 꿀물을 사용하여 혈당을 올려주어야 한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160이상이 지속되면 일시적으로 혈압 약을 사용하다가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 될 때 약을 끊고 계속적으로 본서에 기록된 '성경에서 배우는 건강 원리'를 따라 생활하면 평생 혈압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건강 생활을 실천하면 인체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되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되며, 피가 깨끗하고 맑아지므로 혈압이 정상화 되고, 혈관이 막혀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일과표에 따

라 생활하되 특별히 매사에 생각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건강 생활 실천하기'는 건강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며칠이라도 이 일과표에 따라 생활해 보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생활을 한두 달 정도 계속한다면 몸 자체의 회복력에 의하여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잘못된 생활습관을 끊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음 일과표에 따라서 실천해 보기로 하자.

건강 생활 일과표

아침 5~6시 **기상** (개인 형편에 따라 시간은 조절할 수 있음)

- 물 마시기 : 일어나자마자 양치한 후 생수를 한 컵 마신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한차례 정도 더 마신다.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한다.
- 기도와 말씀 :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 운동 :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한다.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 규칙적인 식사 : 하루에 쓸 에너지는 아침 식사로 받아야 하므로 식사를 반드시 잘 하도록 신경 쓴다. 이 책에서 배운 건강식을 매 끼 먹도록 한다.
- 적당량 : 매 끼 식사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끼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는다. 간식, 과식, 폭식은 입으로 무덤 파는 것임을 명심하라.
- 걷기 : 식사 후에는 자리에 눕지 말고 고개를 똑바로 하고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 물 마시기 : 식사 2~3시간 후부터 점심 식사 30분 전까지 깨끗한 생수를 두 차례 이상 마신다. 식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땅콩 한 알이나 주스 한 잔도 금물이다. 이것은 매 식사 때마다 지켜주어야 한다.
- 과일식 : 과일식을 하는 사람은 매 식사시간 마다 밥을 먹지 않고 과일만 먹는다. 과일을 먹을 때는 한 끼에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먹지 않고 한 가지 과일만 소량으로 먹는다. 예를 들어 사과라면 보통크기의 1개 분량이면 된다. 이 때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은 파인애플을 제외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로 하되 하루 세 번 각각 다른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 완전 금식 : 금식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식사를 하지 않고, 매 식

사 때마다 물 한 잔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시면 좋다. 식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두 차례 이상 깨끗한 생수만 마신다.

- 약물 : 금식할 때에는 사용하던 약물은 일단 중지하는 것이 좋다.
- 각종 질환자 : 각종 암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각종 피부병, 자가면역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 과체중인 사람들은 체력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나 이틀 금식을 하거나 혹은 그 이상 금식을 해주면 몸속에 있는 독소 제거와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식사 병행 : 금식을 하기에 체중이나 체력이 받쳐주지 못할 때에는 매 끼 식사 시간에 소량의 밥을 먹든지 과일식을 한다.
- 위장 장애 :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물금식이나 과일식을 하지 말고 흰 쌀죽 한 공기를 매 끼마다 먹는다.
- 올리브유 : 사이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한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 2Ts, 숯가루 1ts를 종이컵에 넣고 저어서 마신다. 위에 통증이 올 때마다 이와 같은 숯·올리브유를 마신다. 3~4일정도 이렇게 해주면 위에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치료된다. 이후부터 식사량을 줄여 회복식을 며칠간 하다가 정상 식사로 들어간다.
- 회복식 : 금식 후의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회복식 기간을 거친 후 정상 식사에 들어가야 한다. 하루 이틀 금식했을 때는 소량으로 회복식을 한다. 3일 이상 물금식을 했을 때는 첫 식사를 현미

밥만 한 숟가락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시작한다. 매 끼마다 밥 한 숟가락과 반찬 한 숟가락씩 차차 늘여가면서 정상 식사로 간다.

- 과일식 전환 : 물금식을 1~2일 하다가 과일식으로 들어갈 때는 과일식 하는 양의 절반만 먹으면서 과일식을 시작한다. 3일 이상 물금식 하다가 과일식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끼에 사과(예를 들어) 1/4쪽을 껍질 벗겨 꼭꼭 씹어 먹고, 다음 끼는 사과 1/2개 분량의 다른 과일을, 또 다음 끼엔 3/4분량을, 하루가 지나면 정상적으로 과일식을 하면 된다.
- 과일식 후 : 과일식 후 식사를 할 때는 식사량을 줄여서 시작하여 며칠간 회복식을 하다가 정상 식사를 한다.

☞ 금식, 과일식, 죽식으로 건강 회복의 첫 단계를 실천하다가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더 악화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까지 본 서에서 배운 대로 건강법칙을 지키며 건강식을 하면 평생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이와 같이 잘 실천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전 10시 노작 운동

- 옥외 활동 :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 활발한 운동을 한다. 산책, 정원 가꾸기, 채소밭 가꾸기, 집 주변 청소하기 등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운동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일으킨다.

- 환기 : 방 안은 맑은 공기로 교체시키고 이불은 햇볕에 소독하고, 집 주변에 쓰레기가 썩지 않도록 청결에 유의한다.

오후 12시 30분 점심 식사

- 식사 방법 : 점심 식사 때에도 아침 식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식, 과일식, 금식을 한다.
- 휴식 : 점심 식사 후 눕지 말고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고 휴식한다.

오후 3시 운동 및 휴식

- 걷기 : 오후에는 햇빛에서 1~2시간 씩씩하게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걸어준다.
- 씻기 : 운동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 휴식 : 피곤을 풀기 위해 잠시 쉰다.
- 기도와 명상 : 잘못된 인간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반성과 회개로 화해의 시간을 갖는다.
- 이 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고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한다.
- 물 마시기 : 식사 2~3시간 후부터 저녁 식사 30분 전까지 깨끗한 생수를 두 차례 이상 마신다.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

- 가벼운 식사 : 잠자리에 들 때에는 위장이 완전히 휴식해야 하므로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한다.
- 과체중 : 체중을 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 한 두 컵을 마시고 금식하는 것이 좋다.
- 허약자 :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아침, 점심 식사량의 절반 정도만 가볍게 하거나 과일 한 가지 정도만 먹는다.
- 물마시기 : 가벼운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깨끗한 생수를 한 두 차례 정도 마신다.

오후 7시 하루 일과 정리

- 예배 : 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 하되 온 가족이 함께 건강 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모은다. 혼자서라도 꼭 하루를 되돌아보고 창조주를 찾는다.

저녁 9시 취침

- 취침 시간 : 몸은 휴식을 통해 재생되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저녁 9시 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는 잠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독자들이 '건강 생활 실천하기'를 통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

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나누어 주도록 하자. 먼저는 가족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먼 곳에 있는 친척에게 까지 그렇게 하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실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현대의학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의학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벗어나 '건강 생활 실천하기'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에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직접 가정요양원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환자 집을 방문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 생활 원리와 원칙들을 가르쳐주면 건강한 사람에게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건강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고, 지금까지 벧엘에서 검증된 것이므로 누구나 실천하면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

복음과 건강의 관계

건강과 복음은 분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언급한 회복은 몸과 마음과 영의 전인적 회복이며, 오늘날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먹

고 마시는데 부절제하여 얻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회복 받을 수 있는 하늘이 보낸 복음이다.

이 글을 읽고 독자들이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받고 실천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마 9:12)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본 서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기 바란다.

만약에 독자가 회생불능의 상태의 중증환자라면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의사를 꼭 찾아가지 않겠는가?

2년 전 쯤에 유방암 환자 한 분이 벧엘을 찾아왔다. 40대 후반의 여성은 유방과 임파선과 폐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었고 유방에는 3.8센티미터의 암이 있었다. 병원에서는 이대로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제로 암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자고 했다. 두 번의 항암제를 맞은 후 체력과 건강상태가 너무 나빠졌기에 더 이상 항암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암으로 죽기보다 항암제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병원치료를 포기하고 벧엘 수양원으로 왔다.

나는 이 환자와 상담하면서 육신적으로는 회생 불능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처방을 소개하였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닌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 여인은 그 길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다.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에 자아가 녹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갈등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엔 숙소에서 교회와 식당으로 다니기도 힘들만큼 체력이 허약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생기가 오르고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온 몸과 마음에 생명으로 작용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다. 석 달쯤 지난 후에 유방에 있던 암 크기가 팥알만 하게 줄었다고 간증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 있다.

우리는 육신의 병보다 더욱 심각한 죄라는 병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 큰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 서신 406, 1906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물질 곧 음식, 공기, 물, 햇빛 속에 그분의 생명을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것들을 먹을 때 그 물질이 피가 되고 온 몸에 생명을 주는 치료제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영혼의 양식이다.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사랑의 순환을 통하여 온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건강 기별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재창조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경험을 증거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력을 증거 하는 일은 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붙들도록 격려하게 하신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병실이 벧엘로 바뀔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할 수 없는 분명한 말로 알려줄 수 있

다. 그리스도는 직접 병실에 오셔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 같으면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확신 자체가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 가정과 건강, 223 ❖

PART 3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12절)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증거해야만 하였다.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 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므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눈을 돌려 주님의 신성, 주님의 공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의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복음전도, 190–191

1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이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한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그런데 이 주제가 안식일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 창세기 2장 1~3절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며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영원히 존재할 참된 경배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받음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신 그 관계이다. 이 관계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이다.

인간이 범죄 하기 이전에도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존재 하였다. 의는 거룩함, 사랑, 생명, 빛,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산상보훈, 18 참조).

안식일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분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이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 때부터 세우신 법이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당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어 창조주와의 믿음관계가 깨어지므로 이 의를 잃어버렸다. 하

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는 안식이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8)고 하신 그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3절의 에덴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잃어버린 "의"를 회복시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죄인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회복 받으므로 안식할 수 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영원한 복음이다.

태초부터 창조의 기념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안식일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지켰고, 타락 후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왜곡시켜 놓은 이 안식일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 후에도 바울과 함께 사도들이 지켰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법왕권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단 7:25 참조)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계 12:17) 여자의 남은 자손에 의해 회복될 것이며,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지킬 것이다.(사 66:23 참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 시대의 소망, 283

안식일(安息日)은 문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날이다. 그러나 죄가 지배하고 있는 죄인의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에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11장 28~30절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사랑의 율법이다. 이 사랑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계명은 창조주와 연결되어 지켜지는 것이므로 안식일 계명 속에는 모든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요한은 사랑의 율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 요한일서 5장 1~3절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 사랑이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이다.

사랑은 생명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리셨는가? ❖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빌립보서 2장 6~8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

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비우신 결과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다.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증거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들을 조목조목 제정하였다.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 역시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진 전통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일을 하시므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셨다. 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논쟁을 벌였다. 그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하셨다.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증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주는 말씀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 됨"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참람죄로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안식일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일을 쉬고 아버지가 일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이를

통해 그분이 창조주이자 구속주임을 드러내셨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배울 마음이 없었고, 마침내 안식일의 주인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엘렌 화잇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9).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 생애의 빛, 71 ❖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한 바로 그 "예수 믿음"(계 14:12, 개역)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본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분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어지는 쉼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야말로 매일이 안식일이 되게 한다. 이것이 안식일에 쉰다는 의미이며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성도가 회복해야 할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가 해야 할 사역이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의료선교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과 병행해야 하는 사역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별이 전파될 때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췰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8~9)고 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참된 선교사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식일에 그들의 발을 금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사야 58장의 기별을 깊이 생각하라고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바이다. 이 장에서 명령한 자선 사업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그것은 그분이 직접 지시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이 기별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와 그것이 현저하게 성취될 때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때문이

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12절).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일에 대한 표징은 불법의 사람에 의해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율법 중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이 사업은 더욱 시급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구호봉사, 33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성도들이 의료 선교 사역을 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팔과 손이 몸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의료 선교 사역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역에 연합해야 할 것을 거듭거듭 지시받았다. – 증언보감 2권, 526

다음에 소개하는 인용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표징임을 설명하고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은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며, 그들은 그분의 율법을 거룩하

게 지킨다는 표징이다.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그분의 충성된 백성과 그분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구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 교회증언 8권, 198

나는 창조주일 끝에 있었던 에덴에서의 안식일 제정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 곧 "영원한 언약"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나는 언명하였다. – 자서전, 408

하나님의 표징 또는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출 31:12~13). 이곳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 증언보감 3권, 232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성령의 사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며, 우리 신앙 경험에

있어서 전체적인 복음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영화)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성소 제도에서 예표 되어 있는데, 뜰의 사역, 성소의 사역, 지성소의 사역, 이렇게 세 국면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속 사역이 우리의 마음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일하실 것이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 임금"은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사탄에게 조종당하던 죄인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서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요 16:5~11 참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해주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마 7:7~12 참조). 이 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성령을 구하고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전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사탄이 죄의 씨를 뿌려 우리의 마음은 "귀신의 처소"(계 18:2)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은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성소 정결 사역이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없이 이 일은 결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먼저는 죄 된 자아로부터의 구원, 죄 된 생활에서의 구원, 죄 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

참복음과 위조복음

의는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 산상보훈, 18

이 의는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의이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므로 의로워진다고 오해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말은 그들보다 율법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므로 얻는다고 생각한 그 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0~22)고 하였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의"를 받으라고 외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중요한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왜곡시켜 놓았다.

율법과 분리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분리된 율법주의 행위신앙은 위조된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과 복음이 만난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비롯하여 안식일, 예배, 기도, 성령, 건강 기별 등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는 모든 일을 사탄은 행위 신앙으로 위조시켜 놓았다.

>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 그들(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의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 시대의 소망, 35~36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데 까지 이르기를 싫어한다. 그리하여 행위 신앙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허가증을 우리에게 얻어 줄 것이다. – 편지, 66.1890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 시대의 소망, 300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 시대의 소망, 638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경험의 차이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며, 미련한 처녀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즉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올 때에 비로소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에게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서 그 기름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 기름은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기름(성령)은 기름 집(예수)에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였으므로 그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수 있었다.

성령의 경험이 없이 성경의 이론만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는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없다.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사랑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에는 사랑의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또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등잔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생애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때에 빛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아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기별에 동의했다고 의를 소유한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그리하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확실히 변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본성은 모두 향상된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한다. – 생애의 빛, 73

구속의 경륜은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칭의이며 거듭남의 경험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정로의 계단, 59

아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에 관하여 너무도 많이 듣고, 전하고, 책을 쓰고, 읽을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다. 이 의는 신성에 속한 사랑이며 인간이 스

스로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이 흔히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경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거 하는 실천된 복음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는 그 의를 나누어 주는 복음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마 22:37~40).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분께 드림으로 그리스도는 영속적으로 내 안에 사시게 된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

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 실물교훈, 311

독자들이여! 이 의를 받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듯이,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의를 원한다면 지금 받으면 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38)라고 하신다.

그분은 이 의를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 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의를 받기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사시려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이 목적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와 함께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

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킹제임스 흠정역)고 했으며 또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빌 2:13) 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 그대가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고 여김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
>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안에 머무신다. 그대는 믿음으로 또한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분의 뜻에 드림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 – 정로의 계단, 62

성경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이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9)라고 한다.

이 의는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한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자기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요한복음 5장 38~40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오직 죄인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영원한 복음이다.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죄인은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아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독자들이여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 요구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 시대의 소망, 762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답장했다. –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다. … 현재와 영원한 복락에 그토록 필요한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 …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와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 오류의 쓰레기들은 쓸려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리의 보석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9.9.3. ❖

카톡으로 받은 간증

최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며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던 한 자매로부터 카톡에 간증이 올라와서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아래에 옮겨본다.

많이 울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와 사사기가
이렇게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품고 지내왔던 분노와 상처들이 부끄러워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염증이 납니다.
코 풀고 똥 닦은 휴지조각 같은 자아 덩어리를 움켜쥐고
다시 재활용하려고 집착했던 시간들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분노, 상처라는 단어와 함께 더러운 휴지조각 같은
자아 덩어리도 함께 버리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벽과 같은 제 자아는
이렇게라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아는 강했고

근본은 참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쉽도록 제 자아가 똥 묻고 구겨진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분노와 상처투성이로 실패한 삶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저를 생명 길로 인도하고 계셨네요.
정말 축복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골몰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도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보니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했기에
신랑의 도착이 늦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 운동이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신념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라도 깨어나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대 기별을 전할 때,
자신들의 신념으로 버티던 종교인들은 쉽게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부자청년 법관의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었듯이…

저는 여기저기 세계 곳곳 준비된 영혼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 김○○

2

칭의 – 거듭남

거듭남은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

칭의는 거듭남이며,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로마서 8장 29~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구원은 창세로부터 미리 준비된 영원한 복음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 2:4)고 하였다.

그러나 죄인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함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의 몸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즉 "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라고 한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관련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죄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의를 주신다. 이때 죄인은 자신의 죄를 드리고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 의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 이 경험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 로마서 6장 3절~13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고린도후서 5장 17절

침례는 거듭남이며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이다. 이 경험을 베드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의 말씀에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자.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方正)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 정로의 계단, 58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내 안에 사시기 위함이었다. 칭의를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영속적으로 사시게 해야 한다.

또한 베드로는 거듭남의 진귀한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강조한다.

>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 베드로전서 1장 23~25절

위의 말씀에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곧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거듭나게 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이다(요 1:1, 14 참조).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즉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영혼은 거듭난다. 이 새로운 탄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각인 될 때 새로운 이해가 일깨워지고,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활력이 솟아난다. … 그리스도는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었다. – 사도행적, 520 ❖

거듭남이 필요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덕망이 있었으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누추함을 느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직설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의 자아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 즉 성

령으로 새롭게 된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구원의 본질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하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다.

>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 시대의 소망, 171

그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 3:9)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을 말씀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믿을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믿을 때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니고데모는 그 날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기 원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현장에 와 있었다. 거기서 그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이 전에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이 때에 니고데모 안에 살아있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임하셨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거듭남 곧 칭의를 경험하

고 있었다. 그 이후 그는 변화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 하는 증인이 되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거듭남의 경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이도 침례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드문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 채로 장사지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 원고, 148.1897

또한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도 자신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도덕성으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 의는 이러한 도덕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의 의이다.

> 교육, 교양, 의지의 활용, 인간적 노력, 이 모두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나 여기에는 무력하다.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생애의 샘을 정결케 할 수도 없다. …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선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 정로의 계단, 18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임하면 옛 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올까?

> 인간이 죄의 상태로부터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 전에 반드시 안에서 역사하는 힘, 곧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능력을 되살릴 수 있고, 이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 정로의 계단, 18

성경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이다.

죄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칭의, 성화, 영화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며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또한 그러하다. ❖

3

성화 – 자라남

성화는 현재의 구원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라면 성화는 현재의 구원, 즉 "오늘의 신앙"이다.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간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다. 이것은 또한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또한 복음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만난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원한 복음이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어 순종케 하"(롬 1:5)는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성화시키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며 말씀이 품성이 된 것을 성

화라고 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약 2:22) 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한다.

엘렌 화잇은 성화를 이렇게 묘사했다.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자서전, 237).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연계 속에 세워두신 실물교훈이다.

>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새로 나는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 다시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씨앗이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 막 회개하고 나아간 자들은 "갓난 아이"(벧전 2:2)와 같이 "더욱 자라나"(엡 4:15, 쉬운말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될 것이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씨처럼 그들은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
>
>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요 3:3, 공동번역 난외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성장 또한 그러하다. 꽃봉오리를 피우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가 자라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막 4:28)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 정로의 계단, 67 ❖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속사람과 육으로 태어난 겉 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간다. 성화는 속사람이 자라가면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후 4:16)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1~24)고 하였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12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경험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한다.

또한 베드로는 거듭나는 경험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벧전 3:21)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품성 건설은 아직은 "공사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엡 2:22 참조). 죄인이 회개하여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았으므로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보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의 죄 됨과 무가치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므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딤전 1:15)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

엘렌 화잇이 말하는 성화

성화란 한 순간, 한 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에 개혁

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탄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 사도행적, 560

기쁜 감정이나 혹은 기쁨의 결여가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든가, 성화되지 아니하였다든가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 참된 성화란 생명이 부지하는 동안 꾸준히 계속하는 날마다의 사업이다. 매일의 시험과 싸우고 자신의 죄된 경향을 이기며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저들은 의를 사모하기를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한다. 죄가 그들에게는 몹시 죄 되게 보인다. – 교회에 보내는 권면, 56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 14:30)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 각 시대의 쟁투, 623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 마지막 날 사건들, 295 ❖

4

영화 – 완전하게 됨

영화는 미래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 혹은 부활로 영화롭게 된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이다.

하나님 그분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롬 3:26)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롬 8:30) 하시는 분이다.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퇴보는 몹시 크다. 그러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예와 격상은 더욱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 곧 탁월한 능력이 나누어져서 그들을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

에 오르게 할 것이다. – 실물교훈, 163

죄인은 그리스도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구원은 불가능이다. 유전적인 죄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될 것이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83

조사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 의인들이다.

위의 말씀에서 심판대 앞에 선 의인들은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될 때 그들의 죄가 도말 된다고 한다. 어떻게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사랑, 의, 거룩함)과 조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써이다. 조사심판을 받고 있는 의인들은 자신의 의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는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다. ❖

죄의 도말과 심판

죄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에 죄의 씨를 넣지 않으셨다. 죄는 사탄의 것이며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죄의 씨를 뿌렸기에 죄의 책임은 사탄이 져야 한다. 사탄이 가져다준 죄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부조와 선지자, 338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하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구주에게로 나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용서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서 조사를 받게 되면 죄의 장본인이 사탄이라는 것이 판명되므로 회개한 자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 죄는 사탄이 짊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 16:11).

죄의 결과는 사탄이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며 죄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일이 현재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심판이며 성소 정결사업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

부활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됨

예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하셨다.

이 천국 복음은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자비의 기별은 없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지금 이 기별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죄가 도말되면,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 변화 혹은 부활하게 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 고린도전서 15장 42~49절

이 때에 부활한 의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 요한일서 3장 2절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말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히 2:11).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될 것이며,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구주가 있다. 그분은 사흘 동안 무덤에 누워 계신 후 그 속박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그분은 요셉의 빈 무덤 너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지금 오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잠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생명의 시여자가 곧 오실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가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려고 오실 것이다.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실 것이다. 거기에 부활한 무리가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생각은 죽음과 그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생각들은 무덤과 묘지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들은 이렇게 선포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죽음의 고통이었으나 그들이 깨어날 때 고통은 모두 사라졌다. …

여기에 그들은 서 있다. 불사불멸을 위한 마지막 손길이 그들에게 닿고 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올라간다. 하나님의 도성의 문은 활짝 열리고 진리를 굳게 지킨 열국의 백성들은 안으로 들어간다. 양편에는 천사들이 종대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스랍들과 그룹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걸어 들어간다. 그리스도는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잘하였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분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 원고, 18.1894.

독자들이여!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생이라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독자들이여, 준비하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때이다!! ❖

5

영원한 복음

가장 큰 기쁜 소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석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12절의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다.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앞에 기술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전체의 복음" 장 전체를 자세히 읽고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 천사의 기별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된 복음이라고 한다.(롬 16:25-27 참조)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나타내신바 된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기쁜 소식이다. 2000년 전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하늘로부터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 기쁜 소식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이었다.

>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 누가복음 2장 10~11절 ❖

평화의 의논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 타락한 사람의 후손들을 위한 신비스러운 대화, 곧 "평화의 의논"(슥 6:13)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계획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계 13:8, 한글 킹제임스)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

어서도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멸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숭경해 마지않을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63~64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 형벌을 제가 받게 해 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 편지, 22.1900.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영광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의 위치까지 자신을 낮추기로 제안하시다니! 그분은 아담이 걸어갈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두실 것이었다. 그는 타락한 인성을 입으시고 아담을 이긴 강한 원수와의 싸움에 돌입하실 것이었다. 그는 사탄을 이김으로써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이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74.2.24.

"평화의 의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4천년 동안 타락하고 퇴화된 인성을 입고 인간의 위치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었다. 이러한 승리로만 죄가 더럽힌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죄는 영원히 불의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의논, 즉 평화의 언약은 성취된다.

> 하늘 성소의 봉사로써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을 이루셨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17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 로마서 5장 1절 ❖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계 14:4)이므로 그

리스도와 함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했을 때 그들을 죄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이천 년 전에 인성을 입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 되신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사흘 만에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신 중보자 예수!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려고 조사심판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분의 승리로 만드신 흰옷을 죄가 도말된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의 예수!

그들을 데리러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님을 항상 가슴에 품고 동행하면서 말과 삶과 일을 통하여

그분을 증거 하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다. ❖

나의 복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롬 16:25)이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면 바울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된 경험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자신이 먼저 받아서 먹고, 맛을 보고, 경험함으로 그 복음이 주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먼저 예수님이 그들 자신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분 역시 "나의 복음"을 전하셨다.

>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씨"(눅 8:5, 킹

제임스 흠정역)를 뿌렸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셨다. 그분 자신의 사상,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삶의 경험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구현되었다. 그분의 종들도 그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실물교훈, 43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고 하셨다. 이 곳간은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의 곳간이다. 이 마음의 곳간에는 예수님을 알기까지의 고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경험, 예수님과 날마다 살아오면서 밝아진 진리의 빛 등, 옛것과 새것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 놓았다. 재산은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은 보배로운 것을 새 것과 옛 것, 둘 다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증가될 것이다.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입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주리고 목말라 했던 경험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결과와 그들이 올린 기도와 심령의 고민과 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경험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진리의 위대한 창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경험의 책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들이 있다. – 실물교훈, 124~125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증거 하였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 간증을 전달하여 감동을 나누는 것만도 아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즉 나의 예수를 증거 해야 한다.

신약에 바울이 쓴 편지서는 바울 자신이 만난 복음이며, 자신의 신앙고백이 그가 전파한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기의 경험의 책을 쓸 수 있어야 하며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달된다. 성령님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구하고 받고 경험해야 한다. ❖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누구인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이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복음 자체에서 나온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고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이다.

엘렌 화잇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 천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이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한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387

>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하나님은 진리의 강력한 칼,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그분 곁에서 거룩한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수용하고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를 상징한다. – 교회증언 5권, 455~456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 복음을 힘 있게 증거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 편지 79.1900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 교회증언 8권, 332 ❖

6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독자들은 이제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성경전체의 복음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 단계로 전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음이다.

>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안에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면 현재 하늘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에서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 죄는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이 정죄 받고 심판받는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소식은 바로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에게서 죄가 도말되면 즉,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회복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일이다.(PART 3. 1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참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여 둘째 사망에 처한 인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되심을 증거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하여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한 안전장치가 된다.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앞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그 두려움은 무서운 권세나 악, 자연 재해 등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 이 두려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 세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렘 10:11)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은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시도하였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율법(안식일)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과의 믿음관계를 깨어 버리므로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자신이 인간의 경배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다.

사탄은 이 정신을 가지고 천사들을 속였고 나아가서는 온 우주를 속이려 하였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선언 하신 후 범죄 한 인간의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려 함이었다.

인류의 구속사업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현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범죄 한 인간의 자리에 서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사탄이 공격한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셨다. 그리하여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 하시므로 이 세상과 우주에 창조주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마태복음 9:1~8에는 예수님께 고침 받은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풍병자는 죄책감에 눌려 구원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있던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내려와 예수님을 만났다. 주께서는 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며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믿은 그 중풍병자는 곧바로 일어나 걸어갔다.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마 9:8)렸다.

또한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눅 7:16)고 하였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증거 하는 증인으로서 일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종이 되셨으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모본이시다.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창조주가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가장 잘 알리는 방법은 창조주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는 없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계 14:7)을 돌리게 하셨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독자는 본 서에서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하나로 일할 때에 환자들의 병이 치료되는 여러 사례를 읽었을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

아들이므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였다. 의료 선교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을 통하여 증거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사업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일을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이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으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다. 느부갓네살왕은 온 제국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단 2:11)고 하였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해석도 주셨다. 다니엘은 왕이 꾼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말하였다. 이 일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 다니엘서 2장 47절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과 사자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다니엘과 함께하셨고 사자의 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을 보러 온 왕은 살아있는 그를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하였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 다니엘서 6장 26~27절

또한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 3:17-18)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 위기의 때에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하나님이 일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된 왕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 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 다니엘서 3장 28~29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신앙은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계14:11)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 올 때에 마지막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다. ❖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라고 하는 그 심판은 1844년에 예수께서 조사심판을 하시려고 지성소에 임하시는 때를 가리킨다(단 7:9-26 참조). 이 심판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정체가 밝혀지고 사탄에게 유혹받은 인간의 죄는 사탄이 책임지고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 심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그 심판이다.

예수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통하여 사탄과 싸워 이기시므로 죄가 다스리던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단 8:14)는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께서 성소정결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셨으므

로 영원히 죄를 처리하신다는 복음이다.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의와 죄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한 사람도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공의로운 심판을 할 때가 온다는 복음이다.

우리는 엄숙하고 두려운 시간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는 그 죄들을 다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서 계신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의 죄는 다 도말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 결론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소식은 복음 중의 복음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

창조주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복음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기별은 창세기 2장 1~3절의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기별이며 이 기별은 영원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안식일은 일주일중 일곱 째 날 곧

오늘날 토요일이다. 이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존재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다.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 출애굽기 31장 13절

첫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 곧 하나님께 영광, 심판의 때, 안식일 회복은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 사역으로 완성된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안식을 통해 회복된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이 안식이 없다.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써 회복, 즉 구속이 약속된 복음이다.

몇 년 전, 어느 절의 스님이라고 하면서 상담 전화가 걸려 왔다. "나는 거기 가도 예수는 안 믿을 텐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 스님은 위암 환자였다. 나는 괜찮으니 오라고 대답하여 그를 받아들였다. 그 스님은 벧엘 수양원에 와서 3주 동안 지내게 되었다. 건강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된다. 하루하루 소화력이 살아나고 마음이 열리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토하고 먹지 못하던 환자가 3주 쯤 지난 후에는 정상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절에서도 채식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채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스님이 궁금한 듯 물었다. "예, 여기는 채식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를 한답니다." 나의 대답에 그 스님은 조금은 의아해하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부처님 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높은 신입니다!" 하며 돌아갔다. 나는 이 스님을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께 와서 문둥병을 고침 받은 이방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번은 어느 개신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당뇨합병증으로 중풍이 온 것이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겨우 발을 옮겨 놓을 정도였다. 열 가지가 넘는 약을 매일 먹고 있었다. "목사님 식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신자들이 냉동고에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넣어줘서 그런 거 먹고 살지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에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신 음식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매 강의마다 필기하면서 열심히 배웠고 사모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건강 요리를 배웠다. 1주, 2주 지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주신 건강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약을 다 버리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신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한 달 가량 지났을 때 그 목사님은 의지하던 지팡이를 버리고 스스

로 걸을 수 있었고 등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물론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되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 목사님은 "태초부터 안식일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그 결과는 건강이 회복될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 하였다. 그 목사님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배일은 부활의 기념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맞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분의 말씀도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함께 전해질 때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회복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지금도 재창조가 일어난다. ❖

7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 요한계시록 14장 8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전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인가?

하나님의 율법(안식일)을 무너뜨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죄악의 잔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은 기쁜 소식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진리와 오류를 섞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즉,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다는 복음이다. 그리하여 사탄이 통치하고 있던 이 세상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아홉 계명도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면 나머지 아홉 계명도 회복된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의 표징이었으며 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을 폐지시키는 것은 안식일을 세우신 창조주를 불신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율법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도전이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은 불법천지가 되었고 인간은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탄핵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기 때문이다. …
>
>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과 구별하셔서 당신 자신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세대를 통하여 준수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다. 이 세력은 하나님과 동등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위에 뛰어남을 증명하려는 생각에서 주일 중 첫 날을 일곱째 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둠으로 안식일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개신교계는 이 교황권의 자식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음행으로 불려진다(계 14:8).
>
> 그리스도교 시대에 인류의 행복의 대 원수는 넷째 계명 곧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 마지막 날 사건들, 123. (살후 2:4~8 참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즉, 예고 없는 각종 천재지변과 사고, 전쟁, 질병과 전염병, 서로 헐뜯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그 외에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사건들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난다는 기별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세상 바벨론에 속박되어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는 생명줄이다.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므로 바벨론이 된 교회

1840년대 미국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한 밀러주의자들에 의하여 재림 운동이 일어났다.

그 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다.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진리의 빛을 거절함으로 깊은 흑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친다.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였으며 첫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 초기문집, 237

첫째 천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친 기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라는 기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 성소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들의 마음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바벨론이 된다.

둘째 천사는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고 경고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교통합운동은 앞으로 이 세상을 거대한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 사탄을 경배하는 거짓 안식일(일요일)을 세우려는 운동이다. 사탄은 마땅히 창조주가 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일을 시도해 왔다. 그는 하늘에서 실패한 그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일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6–8).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계 18:2~5 참조)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이다. – 마지막 날 사건들, 198

아직 이 세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벨론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기별, 곧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별은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 먼저는 자아의 바벨론, 생활의 바벨론, 교육의 바벨론, 모든 거짓 가르침의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의 바벨론을 향하여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밤중 소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밤중소리는 1844년 예수께서 지성소에 임하실 때로부터 지성소의 사역을 마치고 나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기별이다.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기별이다.

이 기별은 졸고 있는 열 처녀를 깨우는 기별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기별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므로 밤중소리의 빛을 받지 못하여 영적 흑암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기별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 둘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는 한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의 광채는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나는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 줄 밤중 소리였다. 실망한 성도들을 각성시켜 그들 앞에 놓인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 초기문집, 237~238

>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

였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그들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 초기문집, 15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마 25:6)고 외치는 밤중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 지성소에서 비쳐오는 셋째 천사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세상에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1844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고 있다.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아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밤중소리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여러 가지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신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깊이 연구할 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깊은 밀실의 기도를 할 때, 순간순간 자신을 온

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빛을 따를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자아이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바벨론은 우리 안에 세워진 거대한 자아의 바벨론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은 자들은 셋째 천사의 빛을 받지 못한다.

> 많은 사람이 세 천사의 기별 안에서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았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닻이 되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휩쓸려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 초기문집, 256 ❖

8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 요한계시록 14장 9~12절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 초기문집, 254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고 종결된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계12:17)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예수님은 1844년에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외치는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계 11:19)를 보았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은 지성소이다. 그리고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계 15:5)이 열리는 때에 지성소에서 나오신다.

그 때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은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계 22:11)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13

이 때에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이 땅에는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직 지성소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

성소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1장과 15장 사이에 있는 12,13,14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율법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창 3:15)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께서는 하늘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 있는 남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셨다. 이 기별은 안식일을 회복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탄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안식일을 회복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버리려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 그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계13:15~18 참조)것이다.

그때 셋째 천사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계14:9~10)것이라고 경고한다.

> 이 기별에서 말하는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교황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45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종교통합은 카톨릭과 손잡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로써 짐승의 우상이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전세계를 하나의 종교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국가개혁운동과 함께 우리의 생활 시스템은 바뀌게 될 것이다.

창조주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편에 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여 종교적, 경제적 제제를 강압할 것이므로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취급하여 생활방도가 끊어지게 할 뿐아니라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법령까지 내려질 것이다.(계 13장 참조)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이 때를 가리켜 다니엘은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12:1)고 하였다.

>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거대한 개혁 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또한 대 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만국을 소집하는데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교회증언 8권, 307

요한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킴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 하는

자들과 구별된 한 백성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이다. 짐승의 표는 법왕권이 제정한 안식일(일요일)이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 …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 마지막 날 사건들, 223~224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현장에 살고 있다. 온 세상은 하나로 연합하고 있다. 사탄은 "그 짐승의 우상"(계 13:15)에게 경배하도록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힘을 다 연합하여 마지막 싸움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계 17:14)

앞으로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탄의 편에 속하든지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본 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이 소중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편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운명은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최후의 기별이다.

>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이다. 각 계층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
>
> 믿음과 불신과의 큰 싸움에는 모든 그리스도교계가 다 포함될 것이다. 모두는 어느 한편에 가담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된다.
>
>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이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 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 마지막 날 사건들, 215~216 ❖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믿음관계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중의 법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이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무서운 도전이었다.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쳐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
> 열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칠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 마지막 날 사건들, 220

사탄은 안식일과 일요일을 사이에 두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최후의 전쟁에서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되게 할 것이다. 요한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계 13:17) 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요구할 것이다. 요한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5)고 기록하였다. 지금은 세상에 재물을 쌓기 위하여 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할 때이다.

하늘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영원히 종식된다. ❖

조사심판과 성소 정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7)라고 하는 그 심판은 현재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심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 복음은 조사심판을 통한 성소 정결이다.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은 성소 진리이다. 그리고 성소 진리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의 청사진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단 8:14)고 하신 이 말씀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분이 하실 성소 정결 사역에 관한 예언이다.

성소 정결은 구속사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회개한 죄인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죄인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 이 일을 하시려면 누가 죄를 도말 받고 구원을 받을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심판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회개한 의인들이다. 이들을 조사하여 회개한 것이 드러나면 그 죄는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최종 죄의 심판은 사탄이 받고 끝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하늘 성소와 하늘 지성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신 그 길은 곧 예수님이다. 그분이야말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시요, 성소 진리이며,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89

> 사탄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탄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 주는 방편이 되어 그들을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99

사탄의 반역의 음모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과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 온 우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며, 이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

9

현대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진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만나고 종결되는 완전한 복음으로써 이 기별은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주신 현대진리이다.

1844년에 예수님은 이 땅으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며 마지막 속죄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예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시므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희망이요, 영원한 복음이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된"(롬 16:25)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 안에서 이룰 것이다. 그 진리는 완전한 일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할 때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 증언보감 2권, 528~529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선교를 연합하라는 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선교는 셋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증거이므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반드시 의료선교와 병행되어 전해져야 하는 것은 이 기별이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삶을 통해 증거하는 외침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진리가 실천되는 것이 의료선교이다.

의료선교는 이사야 58장에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마지막 성도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안식일 회복운동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신 안식일이다.(PART 3. 1장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참조)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

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는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한다. – 복음전도, 195~196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동산에서 선언되었고(창 3:15),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하여 예표 되었으며 성소 제도와 모든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 성소 제도에서 예표 된 그리스도가 이천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성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갈 4:4~5).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전파한 기별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말씀하셨을 때에 선포하신 바와 동일한 복음이다. 바로 여기에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 가려 뽑은 기별 2권, 106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담보물이 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요 16:10)라고 말씀 하셨다.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모든 자들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는 자 속에서 일하신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예수님은 이 일을 해 주시려고 인성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증거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구속 사역의 최종 결론은 "성소정결"이다. 그것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므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창 3:15)이라고 선언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은 현재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심판을 통하여 인간을 괴롭힌 그 죄가 사탄이 가져다주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사탄이 심판받고 선악의 대쟁투는 영원히 종결된다.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 16:11)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죄는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에 그 의를 회복시켜주시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 의는 하나

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의이며,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 원고, 16.1890.

>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고 종결된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인봉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이다.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단 12:4)고 명령하였다. – 사도행적, 585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신 이 글은 예수님이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공개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한 예언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이 시대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시대이다.

또한 그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진 "예수의 증거"(계 12:17)이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경험을 통하여 증거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 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 주는 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 초기문집, 63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복음의 기별이며, 어떤 경우라도 다른 관심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위에 어떤 것이라도 올려놓을 때 복음은 기관을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되지 못한다. – 교회증언 6권, 241 ❖

재림 준비를 위한 현대진리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기별을 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별을 알기 위하여 연구해야 하고 찾아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도말되어야 한다. 죄가 도말되는 속죄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날마다 깊은 회개와 헌신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일치한 신앙을 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의 표준은 예수님이며 이 품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녹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십 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던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했으나, 명목상의 교회들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마찬

가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 마지막 날 사건들, 172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별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다.

요한계시록 7장의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단 12:1)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눅 21:26)

세상은 노아의 때를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죄악의 잔이 차고, 사탄의 활동은 맹렬하게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 재림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우리의 마음 성소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현대진리이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루터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에 주어진 빛으로써 이 의는 칭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이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성소와 지성소 사역을 통하여 완성된다.

예수께서 1844년에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의 사역에 들어가시므로 이 땅에 주어진 빛은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의이다. (본서 178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안식일 회복" 참조)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므로 죄가 도말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율법과 일치한 품성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함으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죄는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이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안식일을 회복한 자가 되지 않으면 다 사람의 계명을 따르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고 있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 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으로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

님의 인(요한 계시록 7장 2절)이 충성된 자의 이마에 새겨진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

마침내 은혜의 시간은 그 막을 내리게 된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 초기문집, 258~259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전체를 포괄한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하는 시험하는 진리이며, 현대진리이다.

오직 현대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이다.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늦은비가 약속되어 있다.

본 서는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본 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 속해 있든지 이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

마라나타!❖

부 록

회복 이야기

백혈병

태국, 토토

저는 토토의 아버지 푸싯 실로(Phusit Siloh)이고, 몽족으로 치앙라이 주 출신입니다. 저는 치앙마이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태국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모교 재무실에서 근무한지 15년이 되어 갑니다.

3년 전 제 아들 토토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왜 아픈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두세 차례 집 근처 병원에 갔었지만 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 가까이에 종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것이 어떤 종양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주립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도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해 방콕의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병명이 백혈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백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백혈병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항암치료를 제시하였고, 완치율이 60-70%라고 하였습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 때 토토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나을 확률이 60-70%라고 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토토는 약 1-2주에 걸쳐 1차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야윈 상태였는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급속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 안이 헐어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종이에 글을 써서 저희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힘이 없어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암세포가 눈까지 퍼져서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는 가려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복부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시력 회복을 위해 토토를 다른 주에 있는 안과전문병원으로 보냈고, 아이는 시력회복을 위해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분야의 의료전문가들이 토토의 치료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당시 토토는 오른쪽 시력이 80% 상실된 상태였고, 청력도 약해져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저는 토토에게 최선의 방법은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의는 아이를 주립병원으로 보내 2차 항

암치료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방콕의 병원에서 받았던 1차 항암치료 때 토토는 약물 수치를 가장 높게 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것이 아이에게 너무 강했다고 했습니다. 2차 항암치료의 약물의 강도는 더 높은데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항암치료를 계속 할지 그만 둘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 항암치료는 확실하게 아이의 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희망은 아이의 생명이 연장되어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있게 하는 것 뿐 이었습니다. 그 때 제 마음 속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5)는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토토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잠들게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토토야, 엄마 아빠는 네가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너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단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잠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서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시면 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실 거야."

상황은 절박했고,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음을 느끼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퇴원하여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쯤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가의 MHPC 건강센터에서 'The Maker Heals(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열흘 세미나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세미나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사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부터 토토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갈 때마다 아이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토토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희 가족은 세미나에서 배운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토토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살아 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심근경색

김○○

1999년 어느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차로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호흡을 할 수 없었고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몇 분이 흐르고 다행히 호흡이 돌아 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저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제 병명은 협심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름조차 생소한 그 병이 뭔지 몰라 의사에게 그것이 어떤 병인지 물었고, 의사는 제게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을 해야 하는데 혈관들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해 보자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약을 한 봉지 들고 집에 왔는데 약을 먹고 난 후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머리가 아파 약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니 반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쪼개서 반만 먹었는데 여전히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물으니 접혀졌던 혈관이 확장되어 그렇다고 했습니다. 심장의 혈관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뇌의 혈관까지 확장이 되어 머리가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며칠 먹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거기서는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혀 있는 혈관을 넓히는 시술인 조형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시술 날 아침 몸에 칼을 대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 중에 있으니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오늘 시술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 아침 드렸던 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술에 개입하심으로 의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막힌 혈관들이 쉽게 잘 뚫리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날 그렇게 고쳐 주셨으면 제가 재림교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시술에 들어가서 저는 부분마취 후 수술대에 누워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벅지 사타구니 위쪽의 동맥에 삽입한 화살표 모양의 바늘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까지 올라가서 탁 치더니 따끔하면서 더 이상 위로 치고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2-30분이 흘렀고, 저는 정신이 점점 몽롱해져 갔습니다. 혈압이 50-40까지 떨어져서 의사들은 결국 시술을 중단하였습니다. 시술 다음 날 병원에서는 제게 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시술을 했지만 그것도 되질 않으니,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가슴을 열어서 막혀 있는 혈관을 폐쇄시키고 다른데서 혈관을 잘라다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겠다고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제가 그 수술을 하기에는 아직 젊다고 하면서 수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제 나이가 52세였습니다.

퇴원 후 밤 12시나 1시쯤 잠이 들었다가 한숨 자고 나서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어 깨보면 옆에 집사람이 없고 저 혼자 있던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다 죽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앓다가 죽는 병이 아니고 갑자기 마비가 오면 죽는 병이므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죽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쉽단 생각이 들었고, 두 자녀 중 한명이라도 결혼을 시키고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한 번 더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처제 부부가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동서에게 '내가 자다가 죽을 것 같다. 시술 예약을 해놨는데 가서 다시 한 번 시술해 보고 안 되면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제게 수술은 맨 마지막에 하고 자기가 권하는 곳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병하기 20년 전에 제 옆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을 한명을 붙여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내 동서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만날 때마다 이 동서는 '참된 예배일은 토요일 안식일이다, 돼지고기를 먹

지 말라' 등 재림교회의 기별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하는 말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대신 저는 '일요일교회에 신학대학이 얼마나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냐, 교수도 많고.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며 반박하고 변명하면서 그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그가 권하는 장소가 나에게 뭔가 희망을 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서의 소개로 벧엘수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최차순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벧엘수양원에 도착한 첫날 최원장님과 면담을 시작했을 때 원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하셔서 죽을병에 걸려 호흡을 못하고 가슴이 너무 조이고 아파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은 "선생님, 그것은 병도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죽을병에 걸려 왔는데 원장님은 이것이 병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저녁부터 나흘 간 과일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교회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원장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인생의 가야할 길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식생활이나 제가 해온 모든 것들이 모두 헛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참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모든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 아침에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서너 살 된 아이처럼 홍조를 띄고 피부가 굉장히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피가 맑아지고 있구나. 내 피가 여기서 먹는 음식에 의해 맑아지고, 그것이 흐르고 흐르면 언젠가 내 혈관 속에 끼어 있던 노폐물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혈관이 뚫어지겠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간 벧엘수양원에서 생활을 하면 건강하게 사는 법들을 배운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재림교회를 찾아갔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벧엘수양원에서 배운 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계양산으로 등산도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환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통증도 없고 협심증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심장병이 위험한 병인데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느냐며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증이 없고, 아프지 않으니 몸에 이상이

없는 것이고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혔던 혈관들을 뚫어 주셨거나 막힌 혈관 옆에 다른 혈관들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내셨을 것이라고 말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벧엘수양원을 다녀 온 이후로 병원을 갈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생활에 보탬이 될까 싶어 심근경색 판정으로 받았던 장애7급의 급수를 좀 더 올려 받을 수 있을지 보기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일간 입원해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사진을 보니 20년 전에 막혔던 혈관들은 폐쇄되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옆에 새로 생긴 2개의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제게 심장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줄 정도로 제 심장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재림교회 성도로써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과학적으로 현실이 된 것이었고, 제가 말해오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시술받는 날 아침에 저는 두려움에 하나님께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막힌 혈관들이 뚫리게 해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날 시술이 실패를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에게 제 몸을 맡겨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고, 안전한 길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벧엘수양원에 갈 수 있었고, 최차순 원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한 몸으로 평온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은 저를 통해 그 분이 치유자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셨음을 믿습니다.

20년 전의 경험을 계기로 저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요양원 가라, 식생활을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의사는 칼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치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적인 치유가 이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도 온전히 낫게 하시지만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올해 72세로 이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갚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제 남은 생애를 드리

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생명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질병의 치유를 받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료 인간들에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

직장암 말기

피부과 의사 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직장암이 항문과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3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고 죽음의 질병에서 허우적거리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에서 깨어난 듯 아찔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최차순 원장님의 건강세미나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듯 한 전율과 감동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내 영혼은 사로잡히게 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의사야?"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전부 거꾸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던가 …

그 이후부터 나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몸의 통증도 사라지고 모든 짐에서 훌훌 벗어난 듯 날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망의 질병에서 완전

히 해방된 듯 희망만이 솟아났습니다.

그 이후 나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과 의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치료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이래의 세포의학과 신농·복희 황제 이래의 기(氣)의 의학, 그리고 이제마의 혼의 의학인 사상체질 의학 등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의학이었는데, 그것은 곧 '만드신 이가 고치시'는, 즉 '생명의학'이었습니다. 나는 이 의학이 장차 '미래의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

원수병

중국, 강○○

저는 중국 항주에서 이곳에 온 지 23일째입니다. 오기 전 3년 반 되는 시간을 고혈압, 협심증, 섬유 근육종으로 많은 병원을 찾아 다녔고 좋다는 약은 수없이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였고, 특히 전신이 아프고 쑤시는 병은 확실한 병명도 없이 치료 방법도 없이 그저 진통제들을 먹으면서 약물의 내성으로 점점 많은 양, 점점 짧은 시간 간격으로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한국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한약도 먹어 보려고 왔습니다. 건국대 병원의 검사 결과는 '섬유 근육종'으로, 3년 동안 약을 먹어야 하고 치료율은 30%라는데, 혹 내가 그 30%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진통은 되는데 머리는 흐리멍덩해지고, 졸리고, 식욕도 기운도 없이 살아야만 하는 진통약이었습니다. 절반의 희망도 없는 약에 매달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참 맥 빠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이곳을 소개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니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두고 떠나기 전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이곳에서는 가능하면 가지고 온 약을 드시지 말라고 할 건데 마음 편히 갖고 시키는 대로 해 보세요."라며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손에 쥐어 주며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약을 안 먹고 어떻게 병을 치료한다는 건지 참 별난 요양원이구나' 생각하고 방에 들어와 먼저 온 환우들에게 진짜 약을 안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다더군요.

저녁에 원장님의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조용한데 그 품위나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고 믿음이 가는 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을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과일식, 물, 운동, 아침·저녁 강의 … 모든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체중이 4-5kg 쫙 빠지면서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밤이면 늘 자주 발작하는 협심증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머리도 아주 맑으니 고혈압으로 근심할 필요도 없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세도 점차 풀리면서 지금은 거의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에 대한 걱정은 점점 없어지고, 원장님의 강의가 머리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전부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헷갈릴 정도로 병 고치러 온 환자가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온 학생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싶고, 강의와 함께 하시는 성경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속에서는 '아 이것이 절대적 진리구나.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꼭 잡아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다 못해도 내 생애에 이것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만 살다가 그대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인줄 알았는데 새로운 확실한 목표가 보이고 남은 생애 해야 할 일을 찾은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자꾸 나왔습니다. 산책을 해도, 누워서도,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무엇이 틀렸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양심껏 살았다고 당당하던 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점차 풀려지기 시작하며 드디어 내 병은 마음의 병, 미움으로 쌓인 병, 시기, 질투, 증오, 자아 등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생긴 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이 병을 고치려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병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죄들이 무더기로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였고 나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걸리는 건 아들을 신앙을 못하도록 하고, 억지로 유학을 보낸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러시아 삼육대학에서 공부하고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일을 돌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해 갖은 방법으로 다른 공부를 더 하도록 유학을 억지로 보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그런 엄마를 원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그 길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아들아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라. 그리고 이곳까지 데

려다 줘서 고맙다. 이제 병이 다 나았다.' 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내 병은 진정 그 '원수병' 때문에 얻은 것인데, 20년 전 나와 두 아이를 버리고 떠난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였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증오와 복수는 원래 사단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도 분명한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데 하루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원장님의 그 진지한 말씀이 제 답답한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돌리니 내 잘못이 더 크고, 지금 형편이 어렵게 된 그 사람이 불쌍해지며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을 누르고 있던 큰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 시원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거에 매달려 고통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받은 감동은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내가 복도 많게 확실한 믿음을 가르치는 이 좋은 참된 진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제일 바닥까지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주님을 따르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동참하여 이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중국에 가서도 널리 자랑하고 원장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생을 살겠습니다. ❖

피부병

이○○

저는 경남 함안군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직생활과 대학교수 그리고 교회일, 시민사회단체와 문학협회 등에서 간부 일을 하는 등 사회 일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학사 학위가 3개, 석사 학위 2개, 박사로서 석사과정 지도교수와 차관급의 고위직을 수행하는 등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피부병을 얻게 되었는데 급기야 발바닥부터 머리 끝 까지 온몸으로 확산된 병의 치료를 위해 4년에 걸쳐 7명의 의사(한의사 3명과 피부과 의사 4명)에게 병든 몸을 맡겼고, 그동안 온갖 민간요법과 병원의 치료비의 지출은 엄청났었지만 호전되지 않은 채 악화일로에 접어들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요양원 직원이 말하기를 "남편이 간암으로 고생했는데 벧엘에 입소 후에 완쾌되어 지금은 다시 교장선생님으로 복귀하여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사장님도 그곳에 꼭 가 보세요." 라면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얼굴까지 번진 저의 피부병에 위기의식을 느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했던 저는 모든 일을 던지고 이곳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오, 놀라워라!

최차순 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과일식을 시작하였고, 5일쯤 지나니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지요. 가슴과 등 그리고 목과 머리에 좁쌀 같은 붓기와 통증과 가려움이 번갈아 가면서 온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거 잘못 들어온 것 아닐까,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걱정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호전반응'이라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이긴 하였으나 의구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호전반응'이 있은 지 3일쯤 지나니 불통같이 뜨거웠던 머리와 목 가슴 등은 점점 안정이 되었고 부풀었던 피부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서 죽은 각질이 소름끼치도록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며칠간 지속되었는데 자고나면 온 방바닥이 밀가루 뿌린 듯 하얗게 되었고 베란다에 나가 머리와 등을 비벼대면 베란다 전체가 흰 눈으로 덮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며칠간 지속 되었습니다.

이제 가려움과 얼굴의 붓기도 점점 제 위치를 잡더니만 코끼리 피부 같았던 목줄기와 머리 뒷부분도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뒷머리와 허리, 그리고 다리와 팔 전체의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 수면 중에도 3-4번을 일어나야 했고 겨우 안정된 딱정이는 또다시 떨어져 나가 피가 솟고 진물이 범벅이 되었고 뒷머리 피부병 때문에 자고 나면 베개에 피와 진물이 범벅이 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의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나의 몸의 기적'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그렇게 지속되던 피와 진물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

니라 코끼리 피부 같았던 목줄기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귤껍질 같은 가슴 피부도 마치 여자의 피부마냥 매끄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전능함이여!'라는 감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옆방에 폐암말기로 의사의 방사선치료를 뿌리치고 이곳에 오신 거제의 할아버지가 불과 28일 만에 폐암덩어리 3분의2가 사라지는 경이로운 일을 보고 '나도 저렇게 나을 수 있을까?' 라고 부러워하였는데 그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으니 세상 모두가 전부 나의 것인 양 기뻤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

저는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 좋은 크리스챤'임을 자부 하였습니다만, 이곳에서 성경말씀을 매일 아침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지요. 이 깨달음은 61년간 모태 신앙인으로서 깨닫지 못하였던 대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니 내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고, 그러므로 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일, 아! 61년 동안 몰랐던 이 사실을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 주신 이 몸, 바로 이 의의 병기를 지금껏 이렇게 혹사하고 과식하여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이 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이 몸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요양원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한단 말인가?'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무지하여 당신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4년간이나 병마에 휘둘려 살아 온 이 큰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간곡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1석 5조의 기쁨이여

퇴원하기 1-2일전, 최차순 원장님의 설교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저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은 자들 중에서 배은망덕한 자들을 결코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몇 개 있었지요. 저의 돈 수 천 만원을 떼어먹은 자, 결정적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한 자, 중상모략으로 저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힌 자, 군사 독재 권력을 없애기 위해 민주화운동 할 때 저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한 자 … 이들은 결코 나의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마음 굳게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망가지는

것은 오히려 나의 몸이고 나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챤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 용서하자. 잊자! 다음에 만나면 오히려 웃으며 대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원수들을 위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셨지 않은가!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던가! 그 원한을 품고 사는 나는 과연 크리스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는 다 잊고 살겠노라'는 사인을 보냈고 아내 역시 미소로 내게 답을 보냈지요. '여보 참 잘 하셨어요'라는 묵언의 칭찬을 아내가 나에게 보내면서 서로 손을 꼬옥 잡았습니다. 저는 병도 낫고,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음식과 관련한 또 다른 죄를 알게 되었으며 이제 밖에 나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이 기쁜 식탁을 가르치고, 주위의 병자들에게 이곳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1석5조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랑 크셔라!

이제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사명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설 겁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크실 줄이야!

"주님, 평생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니 지난 4년간의 환란이 오

히려 감사와 기쁨이 되었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이 어찌 이다지도 크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

재발성 구내염

한○○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60세이고 지역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간증을 할 만한 대단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병은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에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병원치료는 물론 한방, 기타 방법을 다 시도하였지만 낫지는 않고 마음과 육신은 시들어 갔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명은 병원에서는 '재발성 구내염'(자가면역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심하면 '베쳇트'라는 희귀병으로 바뀔 수 있으며 이 병은 정말 무서운 병으로써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또 입안에 염증이 한곳에서 오래 생겨 있으면 암으로 변하는 고약한 병입니다.

이 병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하여 그저 식사하기가 약간 불편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지고, 염증이 생기는 주기도 빨라져서 크기가 쌀 한 톨 크기에서 나중에 제가 이곳에 올 때는 1원짜리 동전 크기가 되어서 통증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염증의 발생주기도 처음에는 병원 약으로 2, 3일치의 약으로 치료가 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5일, 일주일, 열흘, 보름, 이제는 한없이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는 않고 입안에 돌아다니며, 위에 아래에 잇몸에 입천장에 어디든지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또 염증이 생기면 동반

되는 무기력증은 정말 나의 육신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증은 어떻게 진통제의 도움으로 약간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무기력증은 어떻게 도리가 없었습니다. 몸의 무게가 천근은 되는 것 같고, 그러니 누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며칠이고 못 일어나고 염증이 나아지면 무기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다시 다가오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이 이러니 생활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떤 계획된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인 관계에서 세우는 계획이 지켜지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 삶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고 부정적 생각에 노여움을 잘 타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흘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입안의 혀가 통증으로 심하게 아프면 차라리 그곳을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염증이 생겨서 낫지 않고 보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조직을 떼어낸 그곳이 문제였습니다. 두 바늘 꿰맸는데(조직을 떼어낸 곳) 사흘 정도면 나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낫기는커녕 심하게 덧나서 환부가 커지고 통증은 심해지고 병원 약은 이제 효과가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수준 높은 현대의학을 자랑하는 의술도 이 작은 염증하나 잡지 못

하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동시에 심한 피로감이 엄습하였습니다.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막연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교인으로써 건강기별을 알만큼 알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식사 방법, 금식의 유익, 교육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실천은 절충식으로 현미식은 하지만 백미도 가끔씩, 채식을 하지만 육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나 더 문제는 맛있는 음식은 많이 먹고 포만감에 빠져 버리는 과식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지혜가 없는 그저 무늬만 성도요 교인이었습니다. 운동 부족, 편식, 과식은 나의 건강을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 세상에 대고 불만을 터트리고 하늘에 불평을 하였습니다. 찾을만한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지금 이런 부끄러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나와 함께한 고통, 저는 이제 막다른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곳 벧엘수양원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곳을 정하기 전에 집 가까운 어디에서 그냥 막연하게 쉬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에 세 가지 잘 선택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이고, 두 번째는 삶의 도중이라도 신앙을 받아들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이고, 세 번째는 막다른 나의 인생길에서 벧엘수양원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벧엘수양원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상 이곳으로 결정하여 내려올 때까지도 회복의 확신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막연한 심정이었는데, 이 마음은 아직 내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도 나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를 맞아주는 돌비가 있었는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나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포근함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등록을 마치고 원장님께서 "장로님이세요?" 하고 물으시는데 "장로는 무슨 장로요, 일도 못 하는데요."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처음부터 과일 식사를 하고 물 많이 마시고 말씀 듣고 잠자고… 2, 3일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그리 잠이 많이 오는지요.

3일째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신호를 몸 안에서 받게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입안에 통증이 조금씩 없어지고 염증도 작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원장님의 아침, 저녁 강의는 내가 어떻게 생

활을 잘못하였는지, 알고도 실천을 하지 않았는지를 깨우치는 강의였기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고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사물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산책길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내게 짐이 되었던 가족 간의 문제, 교회와 세상에서의 얽힌 실타래가 풀어졌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주마등 같이 마음에 지나면서 서서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 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 발아래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열흘이 되었는데 그 지긋지긋하던 입안의 염증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흉한 흉터에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회복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회복은 물론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영생의 소망까지도 확신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시리니"(히 10:37)

곧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확실하게 안고 저 하늘 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보다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신 은혜에 더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벧엘 동산에서 환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도우시는 원장님과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아토피

김○○

저는 벧엘수양원에 오기 전 아토피가 너무 심한 상태였습니다. 햇수로 3년 정도 절 괴롭혔던 아토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전전하고 나중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처방 해 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며칠 동안 증세가 호전 되는듯 하다가 속이 아프고 힘이 들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심할 때는 얼굴과 귀, 머릿속, 몸 전체에 종기가 돋아나고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기 시작하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진물이 흐르고 귀는 진물에 붙어 있다가 아침에 겨우 물로 떼어 내면 계속하여 피가 나고 … 원래 피부과 약은 먹으면 졸리고 계속 잠을 재우는 약인데 밤이면 긁어대느라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이불과 패드, 베개엔 온통 핏자국 투성이고,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이 진물과의 싸움은 정말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병원을 열심히 다녀 증세가 호전되는듯해서 파마나 염색이라도 한 날이면 머릿속은 벌에 쏘인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은 출산한 여자처럼 붓고, 가려워 보는 사람마다 놀라며 의사조차 놀라서 절대 파마나 염색을 못하게 했지만, 하지 않는다고 증세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3년을 피부약을 먹은 결과, 몸은 항상 부어 있었고, 그 부기를 빼 보겠다고 또 다른 약을 복용하면서 나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증까

지 오게 되고 매일 살기 싫다며 남편에게 짜증과 신경질의 쓰레기를 쏟아내며 살고 있을 때, 벧엘수양원에서 치료된 교회 형제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전립선암 말기였는데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졌다는 이야기를 제 남동생이 전해 주며 누나도 가면 나을 거라고 하도 강권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아토피는 세균성 질환인데 항생제를 먹어야지 식단이 바뀐다고 낫겠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곳에 오면 세상과 단절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라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회 사람과 어울리고 그 세계에 빠져 살면서도 한편에선 항상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언젠가는 주님이 저를 온전히 받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달콤했고,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 강의에 때로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원장님의 인도에 따라 이곳에서 말씀을 참 많이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

이 와 닿았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끝내는 일, 나의 몸에 생긴 이 악성 아토피,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 몸의 질병도 내가 잘못 살고 잘못 먹은 결과이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올 당시는 얼마나 부어있었는지 이틀 사이에 몸무게가 3kg이나 늘고 부엉이처럼 퉁퉁 부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도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온 지 20여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아토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구요.

항상 손이 머리 아니면 등, 다리, 팔에 가 긁어대고 있었는데 긁다긁다 어느 날엔 이 손가락만 아니면 상처도 덜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머릿속도 얼굴도 등도 몸 어디도 가렵지가 않았습니다. 원장님과 면담하고 하루 금식, 열흘 과일식, 그리고 보식을 일주일 했습니다. 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맑은 공기, 햇빛, 적당한 운동, 그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복된 소식'임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영적 복음과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육신의 복음이

이곳 수양원에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아토피는 가벼운 질병이고 쉽게 고쳐지는 병이라고 할 때,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고통은 본인 외엔 그 아픔을 모르듯이 피부병을 3년이나 앓아 온 저로서는 그 반복되던 피딱지와 진물과 가려움의 고통을 다시는 앓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는 …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병의 중함과 경함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말씀도 매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하동 시내 한복집에 갔었는데 한복집 집사님이 원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원장님은 옛날부터 성경책만 파더니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그분의 사역으로 주님께 쓰임 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은 땅에 것만 팠더니 지금도 땅에 속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동산에 주님이 머무시고, 많은 환우를 치료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길 기도드리며,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

당뇨병

김○○

충남 예산 삽교읍은 바다처럼 넓은 평야 위에 떠 있는 작은 소읍입니다. 이곳에 삽교 고등학교가 궁전처럼 서 있습니다. 교직 20여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만, 인간성을 말살하는 듯한 혹독한 진학지도에 종사하느라고, 50년도 더 근무한 듯 아득합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수업은 밤까지 이어지는 과외지도, 그룹지도, 심야지도까지 이어집니다. 학교 지도가 끝나면 대개 새벽 1시가 되어갑니다. 나는 항상 진학반 담임이었고 3학년 주임이었고 연구부장 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이 진학지도의 큰 계획 속에 총 책임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잠을 안 재우고 학습시간을 창조해 주나 늘 고심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가 성공한다. 내일부터는 취침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1일 학습 계획을 세워 아침 6시 50분까지 제출하라." 이런 진학 지도를 하려면 나 자신은 학생들보다 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 앞이 바로 내 집인데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학 지도에 피로가 겹칠수록 담배와 커피만 더 찾게 되었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세 갑 이상을 피우게 되고, 커피는 하루에 10잔, 20잔 끝없이 마셔댔습니다. 이럴수록 식사량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도중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허약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가사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가 20일 만에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몸에는 당뇨라는 병이 죄 값으로 천형처럼 몸 깊숙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원할 때 체중은 35kg, 걸음도 못 걷는 나에게 의사는 "당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니 식생활에 조심 하십시오"라고 당부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때 살아난 것이 너무 좋아서 당 같은 것은 병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하기 위하여 한약도 다려먹고 개고기, 소고기를 끓여 먹으며 건강회복에 열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당 약을 계속 먹으면서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갈수록 당뇨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고갈증이 엄습했으며, 먹어도 먹어도 배부를 줄 모르는 고창증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치아가 다 빠져 내려앉았습니다. 앉으나 서나 물만 마셔대니 물메기라는 별명과 눈만 뜨면 잠잘 때까지 계속 무엇이든 먹어야 되므로 식충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물메기든, 식충이든 이런 문제보다도 자꾸 줄어드는 체중 때문에 초췌할 대로 초췌해진 나의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남자 키 165cm 40kg도 안 되는 초췌한 모습에서 오는 자멸감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 숨고 싶은 마음의 괴로움을 세상에는 알아줄 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짊어진 운명은 아마도 그 영혼마저 가랑잎처럼 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여! 이 메마른 생명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죄인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감리교회에 입교하여 있었던바 보잘 것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최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나의 입장이 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

2004년 7월 1일, 민 장로의 간절한 청을 물리칠 수 없어, 그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장로님과 함께 떠나 하동 벧엘수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민 장로님이 마음속에 큰 상처(국회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함)를 입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같이 동행하며 위로해 주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속으로, 산속으로 …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묻고 물으며 찾아왔습니다.

벧엘수양원!

양지 바른 산록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여 신선이 사는 곳 같았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한 느낌이었지만 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모든 미진한 마음이 다 풀리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와 닿는 중압감이 나를 천근처럼 짓눌렀습니다. "오늘부터 과일식을 하세요." 원장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처럼 나를 압도했습니다. 과일 몇 조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장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허공을 채우며 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많이 듣고 부흥회의 설교도 들어보았지만 이런 말씀은 처음이었습

니다. 천둥처럼 울리는듯하다가 엄마의 정다운 목소리처럼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원장님의 강의가 있으시기에 이곳 벧엘수양원이 성령이 충만한 치료의 동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막혀있던 귀가 확 열리는 듯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과일 몇 쪽 먹고 오늘 밤 그대로 잘 수 있을까? 물병은 옆에 있지만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잠을 깼습니다. 정신이 유난히 맑아오면서 이렇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승리감이 가슴을 메워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욕을 잠재워주시고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사흘, 나흘 … 과일식은 4일로 끝내고 정상식을 하여도 여전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매일 원장님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득히 멀기만 하였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평생 그렇게 진지한 기도를 드려 본적이 없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벧엘수양원에 들어온 지 12일 째, 치료의 광선을 받으며 감격합니다.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던 나의 당뇨병은 사라졌습니다. 물메기처럼 마셔대던 갈증도 없어졌습니다. 식충이처럼 먹어대던 음식도 조절이 되었습니다. 체중도 3kg이나 올랐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치의 병은 없다, 다만 불치의 생활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며, 우리 인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강의하시던 원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병이 완치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사임을 잘 압니다.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당뇨는 재발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

오직 예수만 보이리라